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時翼

風水地理 理論의 地勢에 있어
물과 墓地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water and tomb on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張 永 九

碩士學位論文
指導教授 朴時翼

風水地理 理論의 地勢에 있어
물과 墓地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water and tomb on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위 論文을 不動產學 碩士學位論文으로 제출함

2006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不動產大學院

風水地理專攻

張 永 九

張永九의 不動產學 碩士學位 論文을 인정함

2006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2
1. 연구방법	2
2. 연구범위	3
제2장 명당 분석론	4
제1절 간용법	4
1. 용의 일반적 분석	7
제2절 형국론	12
1. 혈형의 4대격	13
2. 길사형과 흉사형	15
3. 산의 형으로 명하는 법	20
4. 24산을 동물형으로 보는 법	22
3절 정혈법	23
1. 정혈의 일반적 분석	24
4절 장풍법	28
1. 사신사의 3대기능	29
2. 사신사	33
3. 사신사의 길이와 거리가 혈장에 미치는 영향	35
제3장 지세에 있어 수국형성 이론	37
제1절 득수법	37

1. 득수	38
2. 수구	38
3. 관쇄	40
제2절 물의 방위와 형태	41
1. 물의 일반적 분석	41
2. 물의 방향	42
3. 물의 형태	43
제3절 길수와 홍수	44
1. 길수	44
2. 홍수	46
제4절 포태법과 황천수	50
1. 포태법	50
2. 황천수	52
제5절 물의 음양과 샘물	53
1. 물의 음양	53
2. 샘물	55
 제4장 사례연구	 57
제1절 지세와 수렴	57
1. 지세	57
2. 지세의 종류	57
3. 산세를 분석하는 방법	63
4. 수렴	64
5.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에서 수렴 사례	64
제2절 수맥이 묘지에 미치는 영향	67
1. 수맥	67

2. 수맥 찾는 법	68
3. 수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70
4. 수맥이 지나간 묘지의 사례	70
제3절 매장법과 물의 관계	73
1. 매장방법	73
2. 매장작업과 물	79
제4절 묘지에서 명당토와 토색과 명당석	80
1. 명당토	80
2. 토색	83
3. 명당석 출토사례	84
제5절 공원묘원 묘지선정 방법 및 묘지에서 최종 명당 확인법	87
1. 공원묘원 묘지선정 방법	87
2. 묘지에서 최종 명당 확인법	89
 제5장 결론	 90
 참 고 문 헌	 92
 ABSTRACT	 95

표 목 차

[표1]흙의 육안적 분류 기준	81
------------------------	----

그림 목 차

[그림1]명당의 지세	4
[그림2]용의 용어 명칭도	6
[그림3]래용의 측정도	7
[그림4]용맥도	8
[그림5]용의 변화도	10
[그림6]정분력의 종류	11
[그림7]혈의 종류	13
[그림8]혈의 종류	14
[그림9]각종 길사도	15
[그림10]역리형	17
[그림11]도주형	17
[그림12]산산형	18
[그림13]현군형	18
[그림14]절산형	19
[그림15]낙사형	19
[그림16]검사형	20
[그림17]압사형	20
[그림18]지장정혈	26
[그림19]인형정혈	27
[그림20]장풍이 잘 된 혈장	28
[그림21]장풍이 안 된 혈장	28
[그림22]바람의 종류	30
[그림23]사신사와 바람	31
[그림24]사신사의 반사경 작용	32

[그림25]사신사의 반사경의 방향	32
[그림26]사신사도	33
[그림27]사신사의 거리	35
[그림28]청룡·백호의 길이	35
[그림29]수구의 종류	39
[그림30]관쇄도	40
[그림31]물 흐름의 종류	42
[그림32]안동 하회마을 전경	43
[그림33]조회수	44
[그림34]위신수	44
[그림35]취면수	44
[그림36]탕뇌수	45
[그림37]공배수	45
[그림38]구곡수	45
[그림39]입구수	45
[그림40]요대수	45
[그림41]창판수	45
[그림42]회류수	46
[그림43]암공수	46
[그림44]용서수	46
[그림45]명진하수	47
[그림46]폭면수	47
[그림47]형심수	47
[그림48]사협수	47
[그림49]이두수	47
[그림50]전비수	47
[그림51]정비수	48

[그림52]반신수	48
[그림53]할각수	48
[그림54]누시스	49
[그림55]림두수	49
[그림56]교점수	49
[그림57]분류수	49
[그림58]누조수	49
[그림59]권림수	49
[그림60]사별수	49
[그림61]류니수	50
[그림62]반도수	50
[그림63]혈살수	50
[그림64]2층이 황천수를 보는 방위	52
[그림65]지세의 여러 종류	58
[그림66]지세의 종류	60
[그림67] 지세의 종류	61
[그림68]직사각형의 골짜기 지세의 묘지	65
[그림69]직사각형 골짜기 지세	65
[그림70]광중안의 물의 모습	66
[그림71]수맥이 지나가는 묘지	71
[그림72]수맥이 지나가지 않은 묘지	71
[그림73]수맥으로 인하여 묘테석을 철사로 동여 멘 모습	71
[그림74]수맥으로 인하여 묘테석이 갈라진 모습	72
[그림75]수맥이 지난간 곳의 유골 모습	72
[그림76]약 200년 전의 화장석 모습	74
[그림77]매장을 하기 위한 석관 설치 작업 모습	75
[그림78]인터뷰 모습	76

[그림79]배토장을 하기 위한 작업 모습	78
[그림80]장비를 동원한 작업 모습	79
[그림81]명당석이 출토된 지세도	84
[그림82]명당석의 모습	85
[그림83]공원묘지 전경	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風水地理의 核心은 明堂이며 결과는 發福이다.¹⁾ 명당이란 사람에 유익한 氣가 나오는 것이며 發福이란 명당에서 나오는 기가 후손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명당은 희소성과 찾기 또한 힘들다.

남향집에서 사는 것만도 3대가 적선을 하여야 한다고 한다. 하물며 명당이란 5대는 적선을 하여야 한곳의 명당이라도 얻는다. 그것은 비단 사람에게만 적선이 아니라 자연에 순응하며 살라는 것이다.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살고 있으면서 자연의 이치, 즉 자연의 법도를 알려고 하는 것이 풍수 사상이다.

풍수사상은 지형과 기후·풍토 등 땅의 地理觀적 자연해석 방법이다.

초목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싹을 피울 때 어느 땅이냐가 중요하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훗날 큰 나무가 되고 풍성한 풀들이 되듯이 사람도 조상을 명당에 모시어 그 기를 받고 싶어한다.

이러한 우리의 자연 생태적 풍수지리를 일제가 未神으로 강압적 치부한 것이 개기가 되어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뿌리를 내렸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과학적 근거를 이야기한다.

陰陽五行說은 韓醫學에서나 풍수지리학에서나 그 학문의 맥락은 같다.

한의학에서는 人體工學的인 측면으로 발전시켜 서양의학에서도 치료하지 못한 환자를 음양오행설의 氣로 치료해 마침내 한의학으로 대성하였다.

1) 이인호, 명당국세와 혈토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p6

인테리어풍수는 西歐化되어 逆輸入되고 있는 실정이다.²⁾ 이러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현장 경험을 살려 연구를 하기로 했다.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피해 부분이 확실한 지세에 있어 물의 영향에 관한 풍수지리는 흔히 일반인들은 어렵다고 생각하면서도 늘 대하는 것이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치는 경우다. 예를 들어 방안의 위풍, 그러면 건축의 부실로만 인정한다. 사실은 그 집의 수맥도 중요하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한다.

풍수는 땅위나 속에 바람길과 물길을 판단하는 것이다.

바람과 물은 사람에게나 자연 생태계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넘치면 피해를 준다.

그 넘치는 부분이 어느 땅이나 하는 것이 주요 관점이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지만 한의학에서는 음양오행의 氣가 허약함과 강함 또한 氣 흐름의 원활함과 막힘을 보하고 저하고 뚫어주는 것이 치료다.

풍수지리학에서도 땅의 氣가 흐름에 생과 사와 흠어짐과 모여드는 것을 찾아 치료(명당에 매장)하는 것이 같다 하겠다.

그 氣찾음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자연공학 적 학문으로 가는 길임에는 틀림없다. 그 길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1.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과 현장 경험을 위주로 한 사례를 바탕으로 풍수지리와 그 사상에 관계된 풍수학자들의 저서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외 29편

2) 이인호, 명당국세와 혈토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p6

과 선행연구 논문들 이인호의 명당 국세와 혈토에 관한 연구(영남대) 외 11편과 각종 민속학회지(풍수관련) 인터넷 기사, 풍수관련 신문기사 등의 문헌과 본 대학원의 전문성을 살려 조사하고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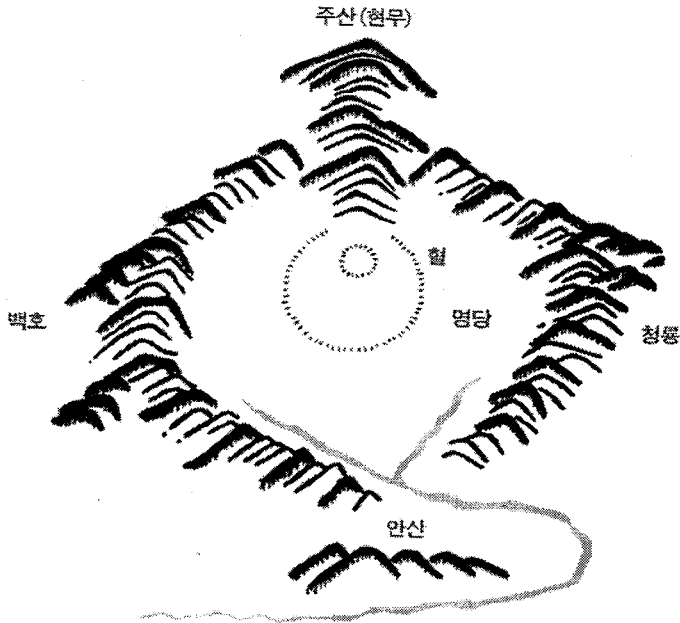
2. 연구범위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범위는 물이 풍수지리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사례를 분석한다.

제2장 명당 분석론

제1절 看龍法



[그림1] 명당의 지세³⁾

太祖山에서 中祖山 小祖山 祖山 主山 山脈이 계속 연결되는 龍穴砂水의 균형·단정·조화를 이루고 기가 살아있는 穴場인 山을 보거나 파악하는 의미에서 看山이라 하며 龍脈이 오르내리고 江을 건너면서 龍이 간직한 기묘한 형상 水의 형태 즉 龍의 생명체가 일으키는 변화의 氣를 보는 看龍法으로 看山이나 看龍은 같은 뜻이다.

山은 風水地理를 구성하는 3요소의 하나로 산·물·방위 등 3요소에 의해

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7

지상에서 일어나는 생성과 변환의 이치를 파악하는 것이다. 산은 땅속을 흐르는 地氣의 주체이자 발생 근원으로써 자연의 만상에 氣 에너지를 보급시키고 氣를 生成하여 유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땅속으로 흐르는 氣는 山과 山脈에서 흐르는 氣와 같은 근원을 갖는 것이다.

山の 개념을 白頭山과 같이 높은 산으로만 한정해서는 안되며 구릉과 언덕의 낮은 산들도 산줄기의 기능을 지니고 하나의 脈을 이루면서 한치라도 높게 흐르면 風水地理에서는 산의 개념으로 본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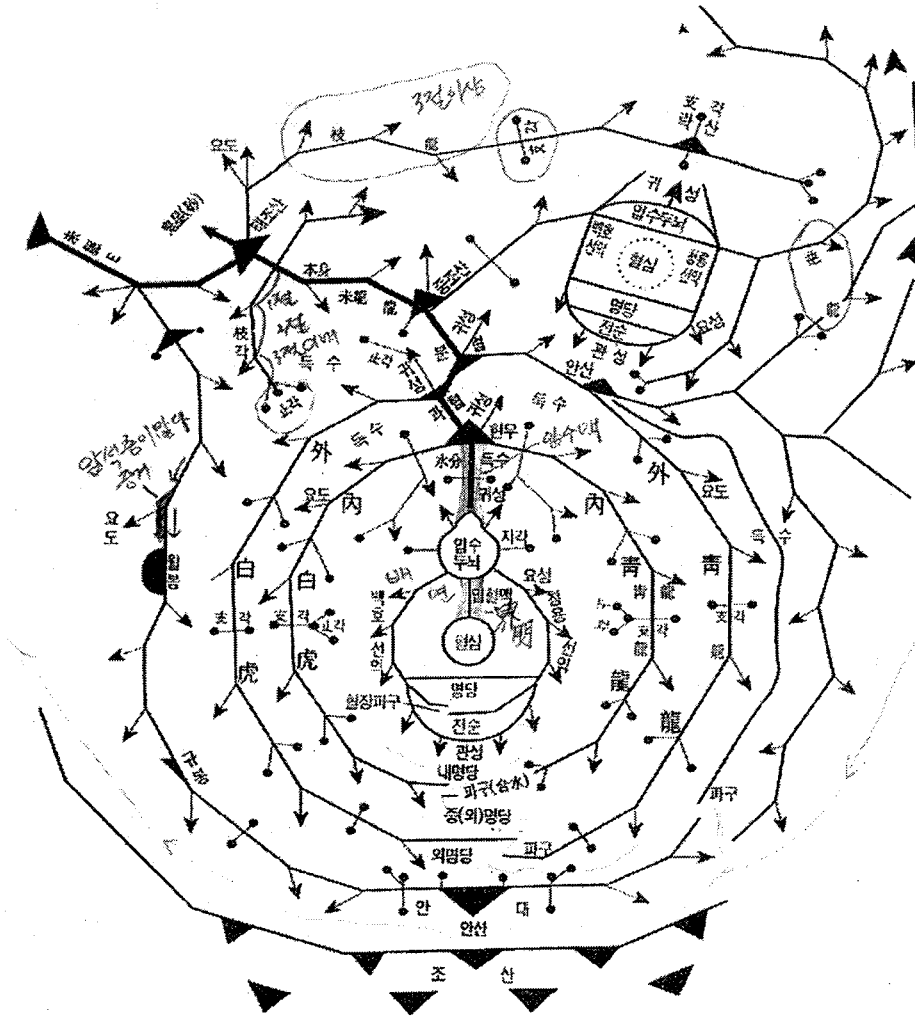
龍脈은 산 줄기나 언덕 등 산 줄기를 통해 흐르며 龍脈의 끝에 氣가 멈추어 結穴된 곳 龍穴砂水の 균형·단정·조화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 明堂이다. 크고 작은 산들이 일정한 起伏으로 脈이 흐를 때 그 산은 마치 용이 꿈틀거리며 生動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살아있는 산, 살아 있는 땅은 土色이 밝고 潤氣 있다.

살아있는 땅의 산야는 氣가 結穴된 것으로 땅 자체가 도톰하고 후덕하면서 주변보다 土色이 밝다.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며 기온이 따뜻하고 침수 위험이 없고 물이 감싸 안은 곳에 山川精氣가 모이게 된다. 이러한 明堂 찾는 것이 看龍法이다.

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67



[그림2] 용(龍)의 용어 명칭도(名稱 圖用語) 5)

5) 김학성, 한성대 강의 교재 중에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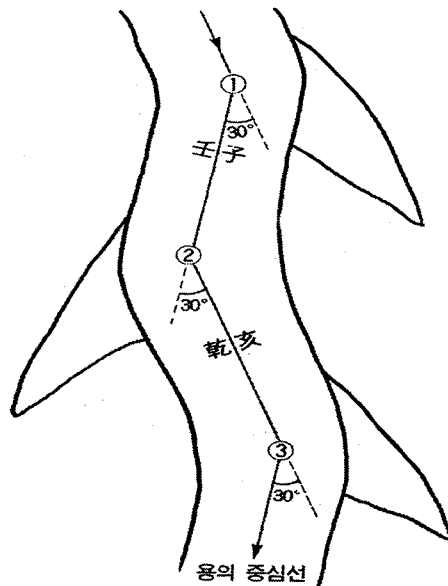
1. 용의 일반적 분석

(1) 來龍

太祖山과 中祖山과 玄武와 入首의 사이에 각각 그 에너지를 이동시켜 주는 電線역활을⁶⁾ 하는 중간 龍脈을 말한다.

來龍도 단절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하고 튼튼하고 깨끗하며 법칙에 맞는 질서있는 변화가 유지되어야 한다.

龍勢를 看山할 때에는 조종산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래용의 변화 질서를 주로 잘 관찰해야 한다.



[그림3] 래용의 측정도⁷⁾

6) 박시익, 한성대 강의내용 중에서 2005

7)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일빛 1994, p100

(2) 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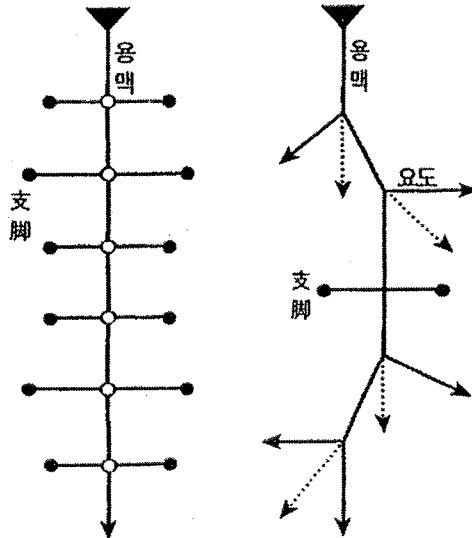
龍은 크고 작고 높고 낮고 순행을 하다가 역행도 하면서 좌우로 구불구불하며 그 변화가 조화무궁한 용의 움직이는 모습을 닮았다고 하여 龍이다.

(3) 脈

용을 몸체로 하여 산의 에너지가 흐르는 通路이다.

(4) 支脚

지각의 발생은 橈棹처럼 龍脈이 각도를 변화시켜주는 反 에너지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용맥이 一자 형태로 적당한 거리를 直進할 때 파괴되거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탱해 주는 받침대 역할로써 용맥의 안정과 中心을 유지 보호해 주는 용을 지각이라고 한다.



[그림4] 용맥도⁸⁾

8) 김학성, 한성대 강의 교재 중에서 2005

(5) 橈棹

龍脈의 진행 방향을 左 또는 右로 각도 변화를 결정해 주는 反作用에너지 용을 요도라고 한다. 역량이 부족한 요도는 本身用에너지를 30°의 각도를 확실하게 변화시켜주고 本身用에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

요도의 역량이 미약하면 용의 변화 각도가 변화 법칙질서인 30°를 유지하지 못하여 無氣龍이 약화된다. 요도가 너무 강하면 오히려 本身龍이 약화된다. 그러므로 요도는 본신용의 역량에 비례해야 한다.

모든 용의 각도 변화는 이 요도의 反作用 에너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6) 枝龍

本身龍을 보호하지 않고 배역하며 따로 뻗어나가서 작은 혈장을 만드는 가지 용을 지용이라고 한다. 지룡이 뻗어나가면 본신요의 역량은 그 만큼 감소한다.

(7) 止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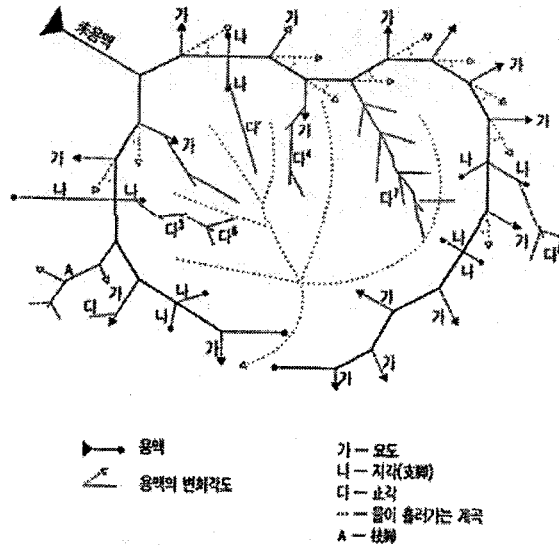
지각은 本身用 橈棹 支脚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안정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지각은 1개 2개씩 발생하거나 여러개의 지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止脚의 발생은 요도나 지각의 끝나지 않은 지점에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각의 형태에 따라서는 마치 요도에 의해 龍脈이 變易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으며 특히 팔자형 지각에는 入首頭腦 入穴脈 靑龍禪翼 白虎蟬翼이 갖추어진 穴場으로 오인하여 이러한 곳에 집터나 묘터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橈棹 支脚 止脚의 용에서는 穴場으로써의 入穴脈에너지가 흐르지 않으므로 묘터로 사용 할 수가 없다.

만약 요도나 지각에 묘를 쓰면 안산 또는 좌우의 靑龍 白虎가 아무리 좋아도 거울속의 미인이며 건강과 재물을 잃는 등 凶事가 발생한다.



[그림5] 용의 변화도9)

(8) 枝脚

지각은 分壁變易을 한 枝龍脈이 三節 이내에서 끝날 때 枝脚이라고 한다. 또한 수변역질에서 山脈에너지가 聚融되어 큰 立體를 형성하면 그 입체에서 발생해 주는 枝龍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枝脚이다.

(9) 正分壁

分壁이란 龍脈이 安定을 취하기 위하여 左右의 양 가지로 나누어 지는 것을 말한다. 分壁이 요성에 의해서 계란형태가 되면 分壁安定手段의 최국인 穴場이 이루어 지는 것이다.

9) 김학성, 한성대 강의 교제 중에서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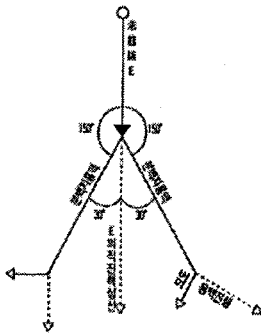
分壁에 입수두뇌귀사가 붙어 있을 때는 左右의 清白蟬翼이 均等한 정분벽이 일어난다. 穴場은 일종의 分壁性安定이기 때문에 정분벽이 일어나지 않는 龍脈은 安定을 취할 수 없고 安定을 취할 수 없는 곳은 穴이 아니다.

분벽으로써 안정을 취하지 못하면 橈棹나 支脚을 뺏으면서 安定을 찾기 위해 다시 進行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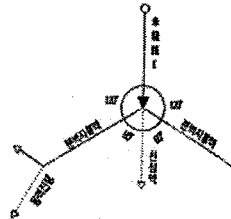
(10) 형태에 따른 정분벽의 종류

$\theta = 30^\circ$ 분벽 $\theta = 60^\circ$ 분벽 $\theta = 90^\circ$ 분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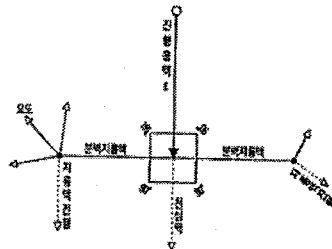
$\theta = 30^\circ$ 분벽



$\theta = 60^\circ$ 분벽



$\theta = 90^\circ$ 분벽



[그림6] 정분벽의 종류 10)

10) 김학성, 한성대 강의 교재 내용 중에서 2005

(11) 不正分壁

부정분벽 龍脈은 山능성의 중심에 골이 패이거나 허물어져서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theta = \angle 30^\circ$ 의 분벽질서를 제외한 모든 분벽각도를 부정분벽이라고 한다.

제2절 形局論

형국론은 지세를 개괄할 수 있는 이론이다. 산체의 형세를 사람·물체·날짐승·들짐승의 형상에 유추하여 판단하면 비교적 쉽게 지세 개관과 길·흉을 알 수 있는 이론이다. 형국론 성립 근거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각자 자신의 존재 理와 氣가 있고 形과 像이 있다고 보는 것에 따른 것이다.¹¹⁾

우주의 만물 만상은 모두 공유의 理와 氣·形·像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물체의 형상에는 그 형상에 상응하는 기생과 기운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땅은 호랑이·소 등 짐승이나 매화·연꽃 등 식물 또는 사람 모양으로 규정하고 비유된 동식물의 생태적 특징을 통해 생기가 모이는 곳을 찾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 학이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는 모양이라면 알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인 穴이 된다.

梅花落地形·蓮花浮水形·將軍對佐形 등 생긴 모습에 의해 붙은 이름이다.

그러나 지세를 파악할 때는 우선 각 地勢의 龍이나 山勢 그리고 물에 대한 氣運을 잘못 판단하는 요인이 된다. 형국론이 땅은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풍수지리의 정신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看龍法·藏風法·得水法·正穴法은 형국론보다 경험적이고 기술적 성격이 강한 이론 체계이다.

11) 서종문, 서울의 지세와 궁궐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학적 분석연구, 한성대 석사학위논문 2005, p25

1. 穴形の 四大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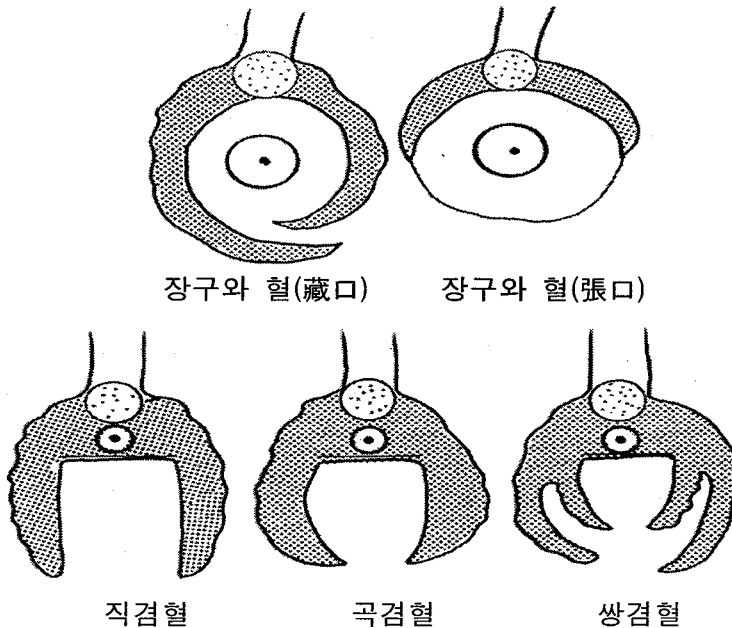
入首하여 穴場이 형성되면 그 穴場에 특이한 증거가 있다.

증거는 크게 나누면 陰, 陽(ㄱ ㄴ, 一十)의 두 종류이나 생김새의 특징을 나누어 窩·鉗·乳·突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1) 窩穴

와혈은 陰穴으로서 겉모양은 소쿠리와 같으며 중앙의 穴心에 오목한 ㄱ요가 있다. 그림처럼 입을 꼭 다물어 혈심을 감춘 藏口穴이 있고 그림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張口穴이 있다.¹²⁾

窩穴은 깊은것 深窩, 얇은것 淺窩, 넓은 것 闊窩, 좁은곳 狹窩 등이 있다.



[그림7] 혈의 종류¹³⁾

12)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173

13)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1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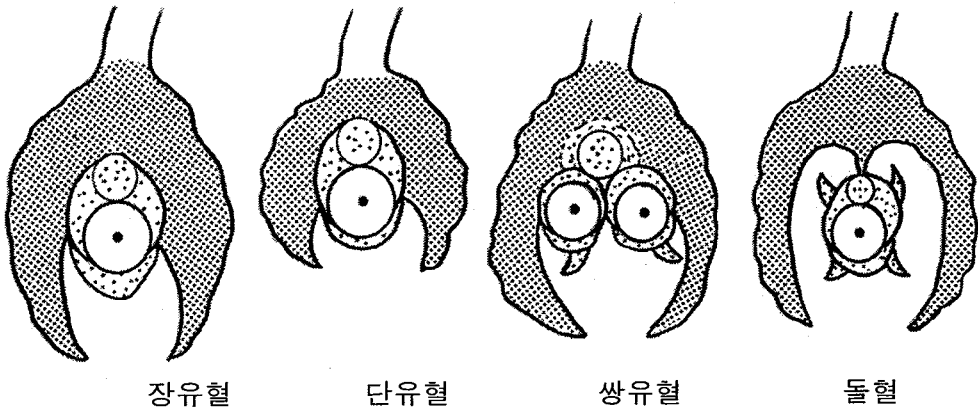
(2) 鉗穴

겸혈은 陰穴一로서 支脚이 양쪽에서 혈장을 받쳐 들고 있다. 그 모양은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이다. 손가락 두 개를 펴고 벌린 모양 양 지각 사이로 반드시 臺를 이룬 튼튼한 전순이 있어야 혈이 된다. 臺를 이룬 전순이 없으면 虎口가 되어 사용 할 수 없다.

겸혈에는 支脚이 곧은것 直穴, 안으로 굽은 것 曲穴, 지각이 각각 두 개씩 나간것 雙鉗穴, 긴것 長穴, 짧은것 短穴, 어느 한쪽이 길거나 짧은것 등이 있다.¹⁴⁾ 그러나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穴場의 평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3) 乳穴

유혈은 陽穴(十)으로써 여자의 유방이나 잉태한 여자의 모습과 같다. 유혈에는 그림처럼 길게 생긴 長穴, 짧게 붙은 短穴, 아주 큰 것 大穴, 두 개 붙은 雙乳穴 등이 있다.¹⁵⁾



[그림8] 혈의 종류¹⁶⁾

14) 이익중, 길한터 홍한터, 동학사 1994, p175

15) 이익중, 길한터 홍한터, 동학사 1994, p175

16) 이익중, 길한터 홍한터, 동학사 1994, p176

(4) 突穴

돌혈은 陽穴(十)로서 평지로 떨어져 나온 龍이 불쑥 솟은 곳에서 생기며 그 모습은 닭의 엄통·오리 알·용의 구슬 등에 비유한다.

혈장에 曜星과 鬼星이 있어야 眞穴이다. 돌혈에는 큰 것 大穴, 작은 것 小穴 두 개가 나란히 솟은 雙突穴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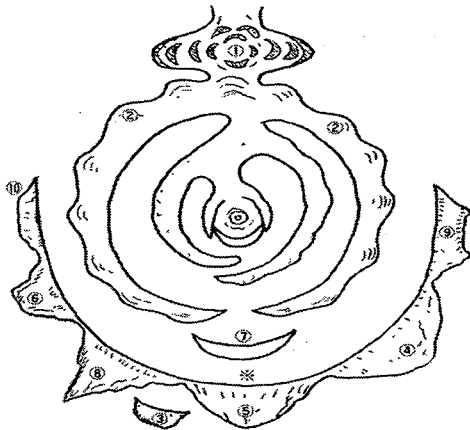
2. 吉砂形과 凶砂形

(1) 吉砂形山¹⁷⁾

① 君王砂：十字脈으로서 子·午·卯·酉의 四貴節이 되면 임금의 난다고 해서 君王砂라고 한다.

來龍에 따라서 辰·戌·丑·未의 四富節이 되면 國富가 나고 寅·申·巳·亥의 四孫節이 되면 자손이 흥성한다.

② 御屏砂：開帳을 한 좌우의 청룡·백호가 혈장 뒤에 병풍을 두른것 같다고 해서 어병사라고 하며 이러한 어병서가 혈장 뒤를 두루고 있으면 王妃가 난다고 한다.



[그림9] 각종 길사도¹⁸⁾

- | | |
|-------|----------|
| ① 군왕사 | ② 어병사 |
| ③ 독봉사 | ④ 군수사 |
| ⑤ 부봉사 | ⑥ 문현사 |
| ⑦ 아미사 | ※ 무수 옥대사 |
| ⑧ 문필사 | ⑨ 영상사 |
| ⑩ 지사사 | |

17)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04

18)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0

③ 獨峰砂 : 홀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독봉사라고 하며 산이 풍만하거나 수려하면 富貴가 난다.

④ 郡守砂 : 이러한 모습의 산이 있으면 군수급의 貴가 난다고 하여 군수사라고 한다.

⑤ 富峰砂 : 五行山形의 金形山으로서 富者가 난다고 부봉사라고 한다.

⑥ 文賢砂 : 賢達한 文人이 난다고 하여 문현사라 한다.

⑦ 峨眉砂 : 여자의 예쁜 눈썹처럼 생겼다고 하여 아미사라고 하며 대대로 절세미인이 난다고 한다.

⑧ 文筆砂 : 五行山形의 火形山으로서 붓끝처럼 생겼다 하여 문필사라고 하며 문장명필이 난다고 한다.

⑨ 領相砂 : 土體形山의 양쪽으로 뿔처럼 되어 있는 산의 모습으로서 領相級의 貴가 난다고 하여 영상사라고 한다.

⑩ 知事砂 : 전형적인 土體形 산으로서 道知事급의 貴가 난다고 하여 지사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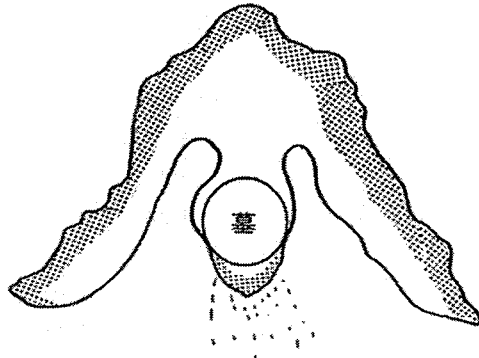
(2) 凶砂形山¹⁹⁾

① 逆理形 : 청룡과 백호가 혈장으로 응기하지 않고 背逆走하는 모습을 역리형이라 한다.

백호가 逆理하면 며느리와 딸이 불효·부정하여 배신을 하고 재물도 도망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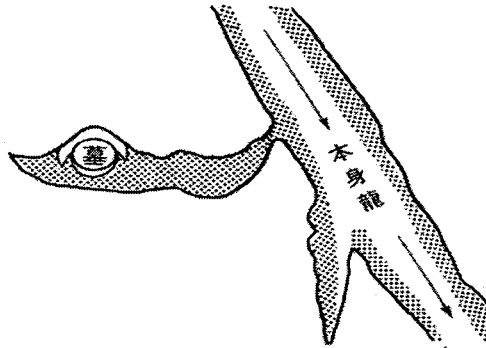
청룡이 逆理하면 자손이 불효·불충·배신하고 자손이 不睦한다.

19)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동학사 1994, p211



[그림10] 역리형²⁰⁾

② 逃走形：本身龍을 배역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산으로서 재난과 파산으로 야간도주를 하게된다.



[그림11] 도주형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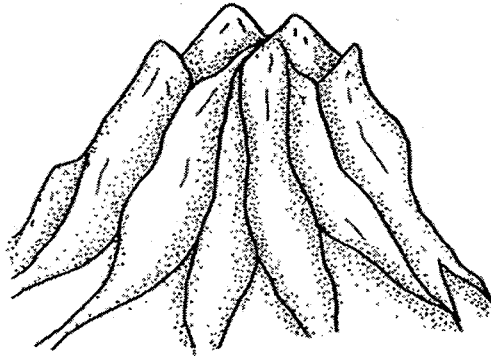
③ 結頤形：혈장의 來龍脈에 자루를 동여맨 모습의 용맥이 있으면 결항형이다.

결항형이 있으면 목을 매 죽는 자손이나 교수형을 받는 자손이 나온다.

④ 散山形：산의 가지가 좌우로 나누어져서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산산형에선는 가산을 탕진하여 不和不睦하여 흩어지고 우환으로 가난을 면치 못한다.

20)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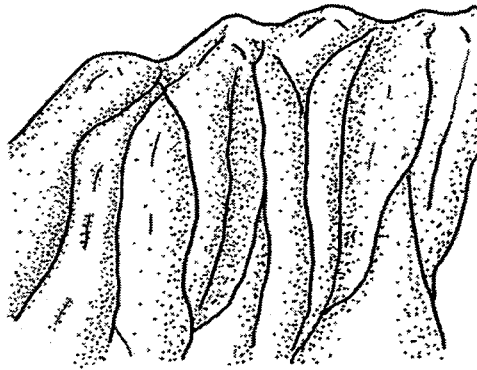
21)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2



[그림12] 산산형²²⁾

⑤ 懸裙形 : 산의 골이 패이거나 하여 그 모습이 여자의 치마주름 같은 산이다.

이러한 산형에서는 주로 여자로 인하여 패가 망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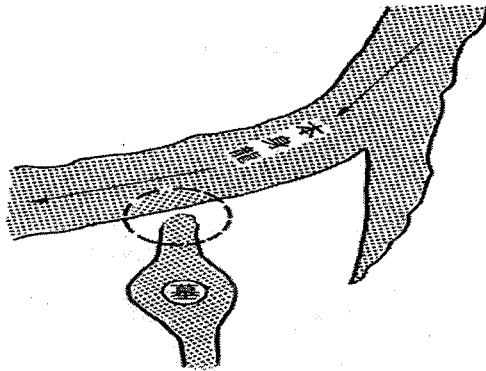
[그림13] 현군형²³⁾

⑥ 絶山形 : 本身龍脈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 곁에서 용맥이 끊어져 따로 떨어져 나와 내용맥이 단절되었다.

이러한 형에서는 혈장에 공급이 없으므로 無後絶孫이 된다.

22)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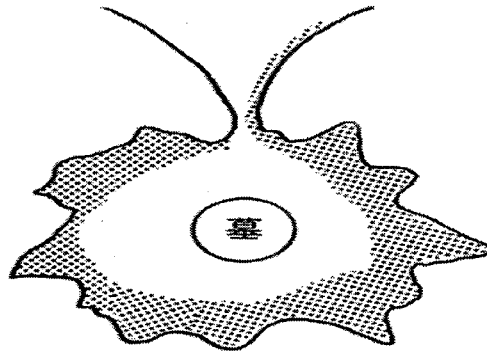
23)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4



[그림 14] 절산형²⁴⁾

⑦ 窺峯形 : 그 모습을 확실히 나타내지 않고 엿보는 형상인데 날카롭거나 험상궂어 보이면 규봉이다. 모습이 예쁘거나 유정하게 보이면 담 너머로 구경하는 越峯으로서 惡이 아니다.

⑧ 落砂形 : 매달려 있는 것이 땅바닥에 툭 떨어져서 썩 퍼지는 모습의 산형이다. 낙사형에서는 자손이 추락사를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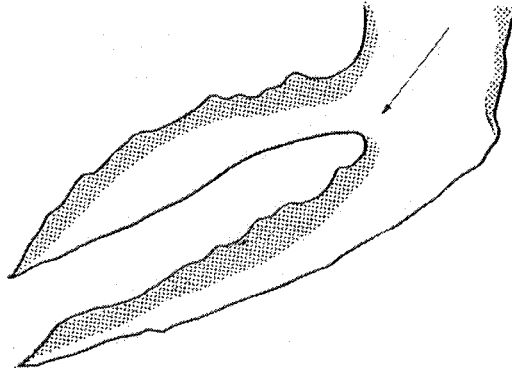


[그림 15] 낙사형²⁵⁾

⑨ 劍砂形 : 작두나 칼날 같은 형의 산인데 理金致死를 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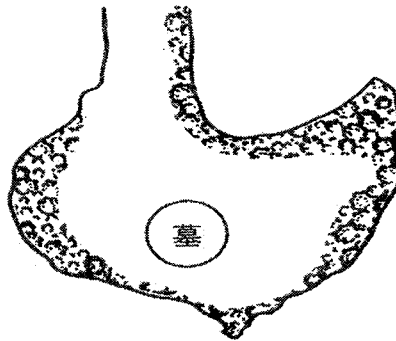
24)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5

25)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6



[그림16] 검사형²⁶⁾

⑩ 壓死形 : 압사를 당하는 자손이 생긴다.



[그림17] 압사형²⁷⁾

3. 山의 形으로 名하는 法²⁸⁾

(1) 貴人 : 산의 모양이 五星의 木성에 해당하며 두 개가 나란히 함께 서 있으면 雙天貴人이라고 부르고 세 개면 三台貴人이라고 부른다.

(2) 將軍 : 五星 · 의 木體에 金星을 가지고 돌이 있는 것.

26)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7

27)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17

28) 임준, 좋은땅 좋은 집, 한국자료정보사 1993, p249

- (3) 武士：金 의 머리에 火星을 가지고 돌이 있는 것
- (4) 仙人：木星에 火星을 두른 것
- (5) 胡僧：木星에 水星을 두른 것
- (6) 玉女擊鼓：主山을 木星으로 하고 청룡·백호의 끝에 북이 있고 앞에
춤추는 砂가 있는 산
- (7) 天梯：木星이 연이어 일어나고 높고 낮음의 단계가 있는 것
- (8) 玉屏：흙산이 단정하게 벽처럼 선 것
- (9) 金几：높은 土星이 정사각형으로 생긴 것
- (10) 帳：水山이 누운 것
- (11) 玉帶：水山이 돌아 감싸는 모습
- (12) 旗：木星과 火星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그 모습에 따라 出陳
·降·敗 등을 분류한다.
- (13) 天馬：金山이 연이어지고 火山을 떠는 것
- (14) 浮雲：木星이 연이어 일어나고 뺨뺨한 것. 鍾·釜·金星을 말한다.
- (15) 獅子：金星의 머리와 土星의 몸 火星의 꼬리를 이룬 것
- (16) 虎：金星의 머리에 土星의 몸을 가진 것
- (17) 庫：金星을 말한다.
- (18) 仙橋：水星의 양 모서리가 火를 떠고 있는 것
- (19) 鏡臺：큰 산의 바깥에 둥근 봉우리가 머리를 내밀고 거울 모양을
한 것
- (20) 壯元旗：木星 배열해서 水의 모습을 나타낸 모습
- (21) 屯軍：작은 언덕이나 흙의 등성이 돌 등이 평야의 큰 산 사이에
있는 것
- (22) 金銀帶：평면에 水星을 휘감아 돈것
- (23) 文筆：산이 뽕족하게 솟거나 책상을 세운것과 같은 형

- (24) 橫琴 : 편편한 언덕이 마치 거문고를 옆으로 놓은것과 같은 형
- (25) 散髮 : 木星이 火星을 두른 형
- (26) 福壽 : 중앙이 조금 일어난 형
- (27) 蛾媚 : 반달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정교한 형

4. 二十四山을 동물형상으로 보는 法²⁹⁾

- (1) 子 : 쥐로 보며 흠쳐먹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앞의 먹이를 모아 혈을 따진다.
- (2) 癸 : 박쥐로 보며 새 동물의 영역을 오가기 때문에 여럿이 함께 가는 것은 괜찮다.
- (3) 丑 : 소로 보며 되새김을 하므로 아래쪽에 혈이 있다.
- (4) 艮 : 사자 또는 게로 보며 辰方에서 오는 바람을 싫어하고 庚方의 바람을 좋아한다.
- (5) 寅 : 호랑이로 보며 바르게 생겨야 하며 낮은 곳에 우뚝 버티고 있어야 한다.
- (6) 甲 : 여우로 보며 혈이 뒤돌아 보며 있게 된다.
- (7) 卯 : 토끼로 보며 어느 곳에 의탁하여 숨은 모습이어야 하고 초목이 많은 곳에 혈이 있다.
- (8) 辰 : 용으로 보며 앞에 모난 돌이 있어야 한다.
- (9) 巽 : 교룡으로 보며 자리를 높게 해야 한다.
- (10) 巳 : 뱀으로 보며 급히 오면 놀란 뱀이고 완만하게 오면 산뱀이 된다.
- (11) 丙 : 사슴으로 본다.

29) 임준, 좋은땅 좋은 집, 한국자료정보사 1993, p254

- (12) 午 : 말로 본다.
- (13) 丁 : 노루로 보며 꼬리가 짧아도 된다.
- (14) 未 : 양으로 보며 직접 오는 것은 꺼리고 曲穴이 된다.
- (15) 坤 : 들개로 보며 등마루가 두텁고 살찌야 한다.
- (16) 申 : 원숭이로 보며 강변에 의지해 있어야 한다.
- (17) 庚 : 새 또는 까마귀로 보며 쌀등의 먹이가 있어야 한다.
- (18) 酉 : 닭으로 보며 앞이 짧아야 한다.
- (19) 辛 : 꿩으로 보며 숨을 만한 장소가 있어야 한다.
- (20) 戌 : 개로 보며 엿보는 방향에 트임이 있어야 한다.
- (21) 乾 : 늑대로 보며 함께 오는게 있어야 한다.
- (22) 亥 : 돼지로 보며 혈의 앞이 짧다.
- (23) 壬 : 제비집으로 보며 앞이 짧고 一字가 돼야 한다.

제3절 定穴法

정혈(定穴)의 要는 主山에 있으니 양이 오면 음이 받고 陽來陰受, 陰來陽受며 비켜오면 바르게 내리고 斜來正下 바르게 오면 비켜내리며 正來斜下 곧은 곳은 穴 굽은데에 있고 直者穴曲 굽은자는 穴이 곧은데 있으며 曲者直曲 급히오면 완하게 받고 急來緩受 완하게 오면 급하게 받으며 緩來急受 딱딱하게 오면 연한곳에 내리고 硬來軟下 연하게오면 딱딱한 곳에 내리며 軟來硬下 산이고 高하면 낮고 평평한 곳에 의탁하고 高昂則託低平 산이 低하고 평평하면 高하고 왕성한 低平昂則託高旺 곳에 穴을 정한다.

1. 정혈의 일반적 분석

(1) 太極定穴 태극의 형상은 원운(둥그스름한것)이다

太極을 陰陽의 本體요 理氣의 本院으로 萬物이 太極이다.

太極은 隱·微·彷彿하여 거칠게는 有形에서 보고 가늘고 미묘한 것은 무형에서 보는 것으로 멀리서 보면 있는 듯하고 가까이 가보면 없고 측면에서 보면 드러나고 다가서서 보면 모호하다. 그러므로 太極으로 혈을 定하고 法은 天穴場中을 돌아다보면 둥그스름한 것이 미미하고 은은하며 망연하고 현저한 사이에 있나니 이것을 太極暈이라 한다.

태극의 眞假를 살피되 태극운 위에 分水 된 흔적이 暈 아래에 合水 된 곳이 있으면 이는 眞結이나 그 넓이는 다만 사람이 옆으로 누울만한 곳이면 되며 둥그스름한 생기가 내취하므로 眞穴이 융결한다.

乘金, 相水, 印木 이러한 것은 乘金, 太極의 원운이 突起한 것을 터는 것이다. 相水는 양면에서 원운을 보호하는 水가 八字로 나누어 와서 명당에 합치는 것이다.

穴土란 居中하여 편벽되지 않고 깊고 얇은 것은 적당히 되는 것이다.

印木이란 혈전에 전순이 토출되어 증혈이 됨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火를 말하지 않음은 뽕죽하고 날카로워서 殺을 띠고 있고 또한 火는 혈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太極권을 부수면 물이나 개미가 棺을 침범하나니 원운을 파서 상하거나 입과 코를 상하거나 頭面을 상하거나 餘氣인 전순을 제거하거나 界脈水를 막거나 하면 眞形이 손상되어 변질위험한다.

높은 담장이나 넓은 축대에 비석·망석 등은 吉水의 砂水를 가리어 그 砂水가 보이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 兩儀定穴 穴의 陰陽이란 그 원운의 테두리 안에서 살찌고 일어나도록 한 곳이 陽이다.

여위고 함하여 오목한 곳은 음이 되나니 이것이 穴法의 兩儀이다. 용신이 작혈함에 있어서 陰龍이면 陽穴이 좋고 陽龍이면 陰穴이 좋으나 만일 반대라면 眞龍眞穴 일지라도 반드시 결함이 있다.

양용에 양혈을 지으면 생리사별 음혈이면 자손벼슬

음룡에 음혈을 지으면 여인이 송사가 많으나 양혈이면 부귀한다.

二氣가 萬物을 化生하는 고로 원운중에 肥起한 곳을 瘦陷한 곳을 陽으로 삼는것이니 穴은 반드시 上肥下瘦, 下肥上瘦하거나 左肥右瘦, 左瘦右肥하여야 二氣가 交感하여 陰陽이 배합되는 것이며 이러한 형은 모두 陰龍, 陽龍에 구애받지 않고 다 吉 하나니 立穴할 때 半陰半陽의 중간에 穴을 정하면 陽氣는 下降하고 陰氣는 上昇하여 天地交泰하고 水火既濟하여서 음양이 취화하는 것이다.

(3) 三勢定穴

삼세란 立勢 서있는 形勢 坐勢 앉은 形勢 眠勢 엎드린 形勢를 말하며 天·人·地의 三等穴法을 가리킨다.

立勢 : 龍身이 솟아 氣가 위로 뜬 것을 가리키나니 天穴 높은 곳에 해당

坐勢 : 身屈하여 기가 中藏(가운데로 감춘 곳)한 것을 가리키며 人穴 산중턱에 혈이 있다.

眠勢 : 龍身이 엎드려 下落한 것을 가리키니 地穴(낮은형)에 해당한다.

(4) 三停定穴

삼정정혈법은 天·人·地의 三才穴法이다.

上 : 天穴 中 : 人穴 下 : 地穴

삼정으로 혈을 정하고 법은 좌우의 산과 안산이 高大하면 天穴을 取한다.
 좌우의 산과 안산이 높지 않으면 人穴을 취한다.
 좌우의 산과 안산이 낮으면 地穴을 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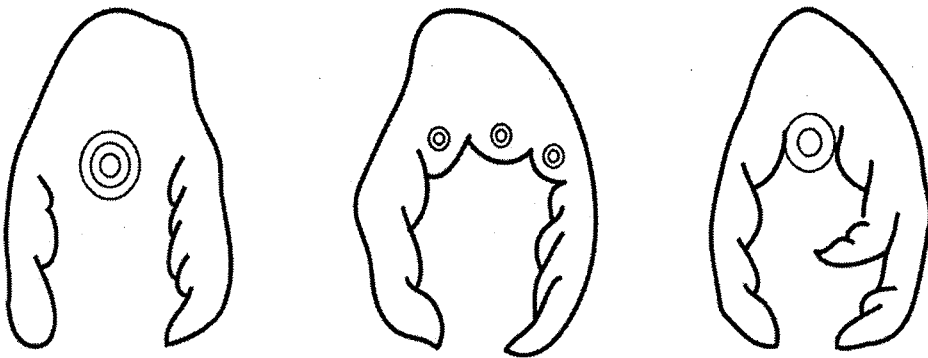
(5) 長山食水定穴

立穴함에 있어 面前의 산수가 佐畔(좌측)으로 쫓아오면 좌변에 혈을 세우고 山水가 右畔으로 쫓아오면 우변에 혈을 세우고 山水가 正中으로 쫓아오면 중심에 穴을 세우는 것이니 다 長山食수로 穴을 定는 法이다.

(6) 指掌定穴

穴場에 양팔뚝이 있으면 人形이다.

팔뚝이 없는 것은 지장법으로 분간하는데 大指根(엄지손가락 밑)과 食指根(둘째손가락 밑)이 가장 귀하다. 젖혀진 손바닥 仰掌의 형은 혈이 중심에 있으니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불가하여 正中の 오목한 가운데 入穴해야 한다. 옆으로 보는 손바닥 側掌은 젖혀진 손바닥과 마찬가지로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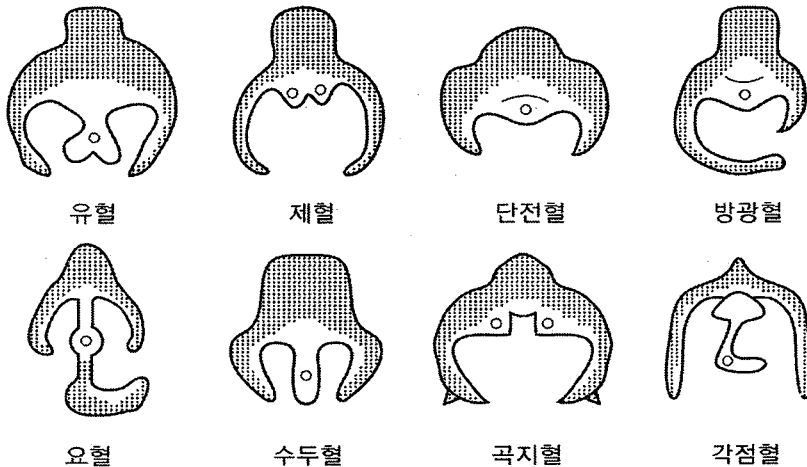


[그림18] 지장정혈

(7) 人形定穴

무릇 땅의 정수리 頂과 늘어뜨린 유방(垂乳(수유))과 혹은 두팔뚝으로 청룡백호가 된 형은 人形으로 取하되 사람의 몸에는 골절의 강한 곳으로 穴을 정한다. 上이 分水된 것을 大八字하는데 이는 사람의 이마와 같고 그 아래 미미하게 양쪽으로 나뉘어 兩片砂를 일으킨 것은 선익(매미날개)이라 하는데 이는 사람의 두 눈썹과 같고 선익의 밑에 正中心으로 것들인 一線의 맥을 介字三叉라 하는데 이는 얼굴의 산근(코부리)와 같고 一線의 맥이 다시 일어나면서 둥그스름한 흙덩이를 이룬것은 원구라 하는데 이는 사람의 머리와 같고 원구의 아래에 있는 혈을 藏口라 하는데 이는 사람의 코 밑에 있는 人中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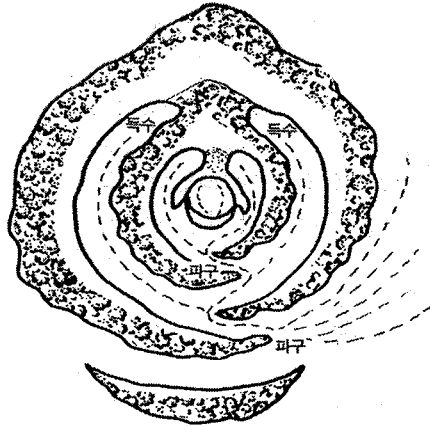
혈의 밑에 남은 기운이 반로되어 처마를 이룬 것은 사람의 윗입술 상전과 같고 穴前의 작은 平垣處는 小明堂이라 하는데 그 薄口는 사람의 입과 같다. 兩傍水가 미미하게 交會하는 소명당 안을 하수(새우수염)라 하며 사람의 수염과 같고 그 양편으로 미미하게 일어난 지세를 陰砂라 하는데 이는 사람의 광대뼈와 같고 陰砂가 미미하게 交抱한 소명당의 아래는 구령(구렛나루)이라 하는데 이는 사람의 턱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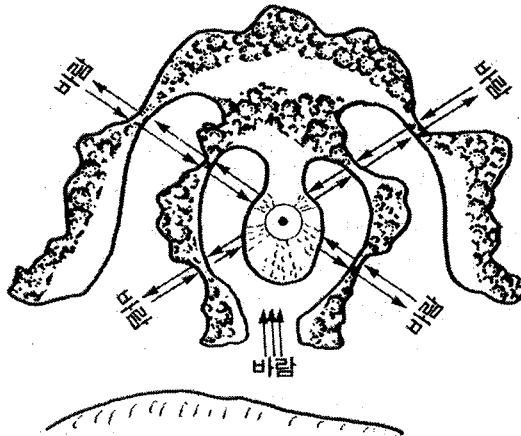
[그림19] 인형정혈

제4절 藏風法

장풍이란 바람을 감추거나 간직한다는 말로써 바람이 직접 통과한다거나 일으키는 動의 상태가 아닌 고요하게 머물거나 막아주는 정(靜)의 상태를 취한다는 뜻이다.



[그림20] 장풍이 잘 된 혈장³⁰⁾



[그림21] 장풍이 안 된 혈장³¹⁾

30)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05

31) 이익중, 길한터 흥한터, 동학사 1994, p205

추운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겨울날 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걸어가면 숨쉬기가 곤란해져서 마스크나 옷깃을 여며서 코 앞을 가려야 숨쉬기가 쉬운 것을 경험했듯이 外氣를 직접 받지 않고 완충되어진 상태에서 大氣의 정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명당 주변의 지세 이론에 관한 風水理論을 통칭하여 장풍법이라고 하며 결국 장풍법을 통하여 定穴도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실제로 도움이나 음택, 주택을 相地함에 있어서는 장풍법이 바로 요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그러므로 風水의 법술은 물을 얻고 바람을 막는 방법을 얻는 터에 중점을 두게 된다.

보다 엄밀하게는 바람을 막는 것 防風이 아니고 불어서 흩어지고 사라져가는 바람을 끌어들여 간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명당 주위의 산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게 된다.

즉 穴場 주위를 山이 둘러싸고 그 中央의 凹地에 陰陽二氣의 結合과 生氣의 활동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靑龍・白老・朱雀・玄武의 四神砂에서 大宗을 이룬다.

1. 사신사의 3대 기능

사신사의 기능은 주룡에 있는 혈에 생기를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혈이나 명당은 사신사에 의해 만들어진다.

그러나 사신사가 있는 곳이 모두 혈이나 명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혈이나 명당에 생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신사가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며 곡면반사기능・블록렌즈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바람막이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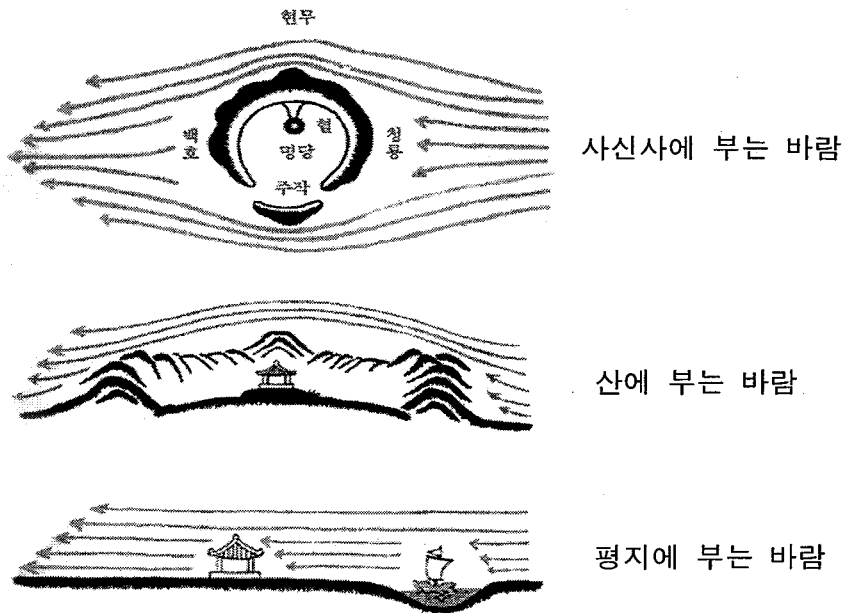
강하게 부는 바람은 오히려 기운을 분산시켜 생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강한 바람을 순하고 부드럽게 하려면 산신사가 사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고 생기를 만들고 흩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과정을 장풍이라고 한다.

청룡과 백호가 있다고 해서 모두 바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니다.

지세에 따라서는 오히려 바람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생기를 분산시키기도 한다. 명당을 앞으로 해서 혈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는 동시에 삼태기처럼 둥그렇게 원형을 이루어 감싸고 있어야 한다.

용호가 명당을 향해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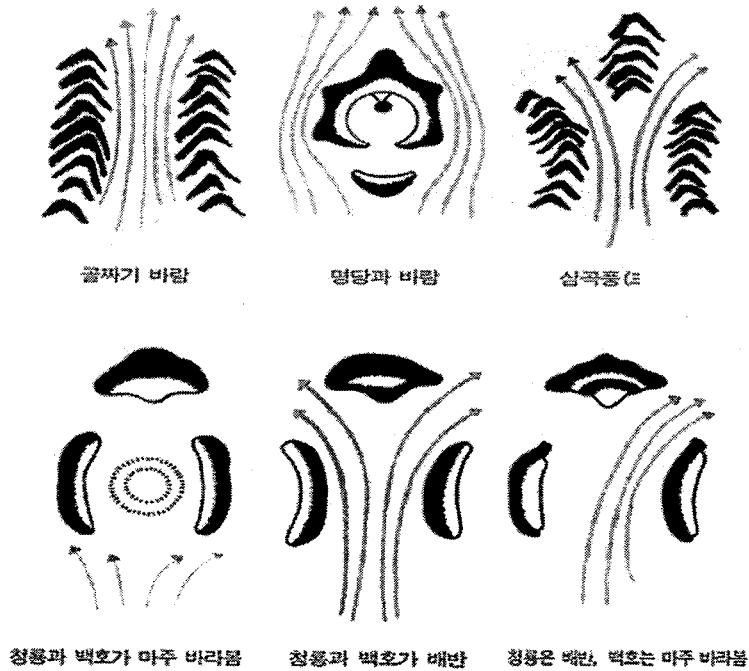
이처럼 바람막이 기능을 해야 하는 이유는 生氣가 바람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³²⁾



[그림22] 바람의 종류³³⁾

3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40

3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41



[그림23] 사신사와 바람³⁴⁾

(2) 곡면반사기능

반사경이란 빛을 반사하는 거울을 말한다.

곡면반사경은 반사면이 곡면을 이루고 있어 빛을 한점에 집중적으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대표적인 곡면 반사경이다.³⁵⁾

산·나무·강들 모든 물체는 자신만의 빛을 가지고 햇빛이나 달빛을 반사한다. 태양과 달이 청룡과 백호를 비추면 그 빛의 일부는 반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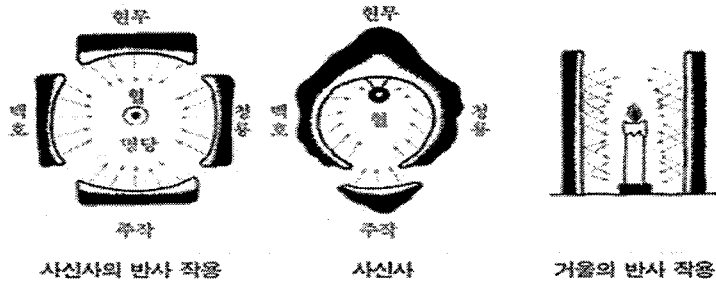
이때 반사된 빛이 한 지점에 모여 하나의 초점을 이루면 그 곳에서 신비한 기운이 생기고 생기가 발생된다. 바로 이 부분을 혈이라고 하고 혈 주변을 명당이라고 한다.

여러 종류의 빛이 모이는 공간은 빛으로 인해 이름그대로 명당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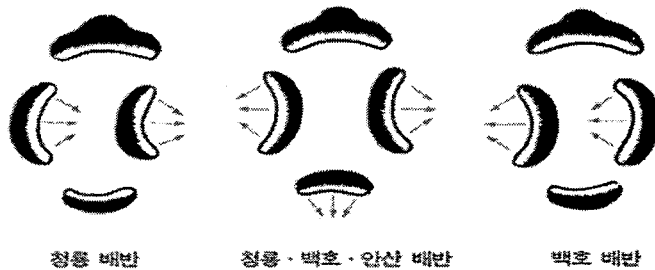
3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42

3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43

따라서 청룡과 백호가 반사경의 완전하게 해야 생기가 많아져 명당을 이룰 수 있다.³⁶⁾



[그림24] 사신사의 반사경 작용³⁷⁾



[그림25] 사신사의 반사경의 방향³⁸⁾

(3) 볼록렌즈기능

흩어져 있는 빛을 한 점으로 모아 매우 밝고 뜨겁게 한다. 사신사의 이상적인 형태를 혈을 중심으로 둥글게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둥근형태의 청룡능선은 볼록렌즈의 둥근 부분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데 바로 볼록렌즈형태의 청룡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기운을 모아 하나의 초점을 만든다. 이처럼 청룡은 혈의 왼쪽에서, 백호는 오른쪽에서, 주작은 혈의 앞에서, 현무는 혈의 뒤에서 각각 볼록렌즈의 역할을 하면 이내 렌즈의 공통 초점이 되는 곳이 바로 혈이 되어 엄청난 양의 生氣가 보이는 곳, 이곳이 명당이다.

3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44

3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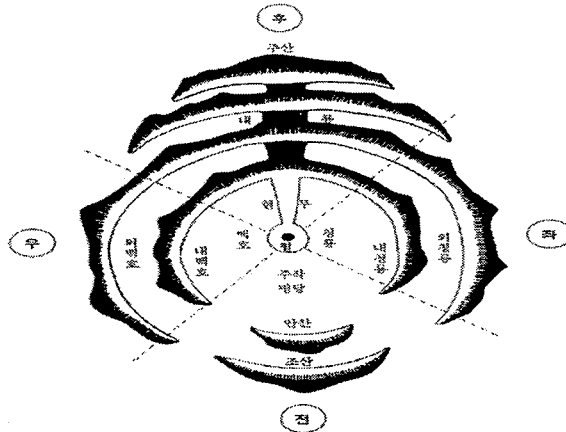
3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42

2. 四神砂

(1) 玄武 : 현무는 용이 入首하기 전 입수에서 가장 가까운 특출한 산으로서 용맥의 에너지가 집합되어 입수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중간 에너지 탱크 역할을 한다.

入首로부터 가까울수록 좋으며 入首로부터 3절 내지 5절 이내에 있으면 最吉이다. 穴場을 향해 머리山頭를 드리우고 垂頭하여야 한다. 입수에서 멀다든가 弱小하면 역량은 미약하다.

머리 山頭가 혈장을 향하지 않고 뒤로 젖혀져 있고 그 모습이 추약하면 좋지 않다.



[그림26] 사신사도39)

(2) 靑龍 : 여러 겹이 있을수록 좋고 단절 背逆한 부분이 없고 힘차게 구불구불 蜿蜒 높낮이 균형유지 에너지 음기각도를 유지하고 穴場을 많이 감을수록 좋다.

청룡이 백호를 안아 싸면서 關鑰하여야 한다. 청룡이 양호하면 자손의 명예와 官運이 좋고 덕·인을 갖추고 충효·형제의 우애가 두텁다.

3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38

등을 보이고 달아나면 背逆走면 혈장 에너지를 빼앗기므로 자손이 단명· 불효· 불충자손· 사회적으로 불신 받는 자손이 된다.

청룡이 형장보다 높거나 끝부분이 크고 높으면 윗사람을 능멸하는 자손이 되고 지나치게 높으면 屍身이 肉脫되지 않으므로害가 된다. 청룡의 어깨가 단절되면 자손 단절, 허리가 단절되면 병신이 난다.

청룡이 백호보다 지나치게 약하고 짧거나 백호가 강하고 길어서 휘감겨 있으면 청상과부가 줄을 이어 생긴다. 현무 이하에서 나와야 좋고 혈장으로 부터 가까운 節에서 나올수록 좋다. 현무사이에서 나올 경우는 혈장의 입수와 선의이 허약하며 養子를 하거나 장손이 절손된다.

(3) 白虎 : 여러 겹이 있을수록 좋고 부드럽고 아름다우며 여자가 다소곳 하게 앉아있는 모습으로 혈장에 에너지 응기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백호가 좋으면 집안의 여자들의 건강이 좋고 정숙· 현모양처· 효부와 자손의 財運이 좋다. 背逆走면 집안의 여자들이 남편을 배신하거나 부정· 불효 또는 자손의 재산상· 사업상의 어려움이 많다. 백호가 머리를 들고 달아나면 初喪이 자주 나고 백호가 不良하면 집안의 여자들 건강이 좋지 못하고 홀아비가 많이 생긴다.

(4) 案山·朱雀 : 안산은 혈장 앞의 가장 가까운 산을 말한다.

안산은 근 할수록 좋고 혈장과 크기· 높낮이· 균형유지 에너지 응기 각도를 유지해야 한다. 안산이 有情하고 아름다우면 자손의 禮가 두텁고 사회의 신망을 도움 받아 사회적인 인물로 출세한다.

背逆走하면 사회의 배신 또한 배신하는 자손이 생긴다. 인상이 험상궂으며 난폭한 자손이 난다.⁴⁰⁾

40)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동학사 1994, p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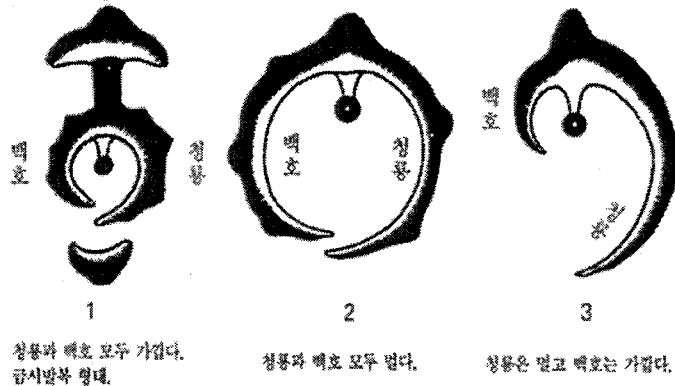
3. 사신사의 길이와 거리가 혈장에 미치는 영향

혈을 구성하는 지세에서 청룡과 백호의 길이는 같은 것이 이상적이지만 두 길이가 다른 경우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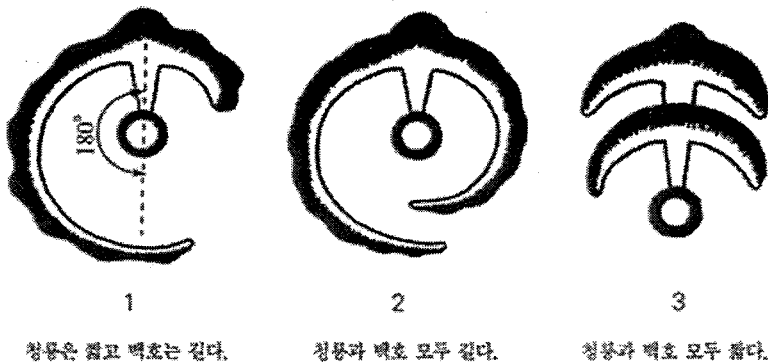
혈과 명당에서 청룡이나 백호까지 거리도 일정하지 않다.

이처럼 용호의 길이나 거리는 지세에 따라 모두 다른데 이 길이와 거리의 차이에 의해 명당은 기운도 달라진다.

(1) 길이 : 청룡과 백호가 180°를 넘게 감싸고 있으면 매우 강한 생기가 발생되어 왕기를 갖게 된다.



▲ [그림27] 사신사의 거리(41) ▼ [그림28] 청룡·백호의 길이(42)



4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50

4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50

(2) 거리 : 혈에서 청룡이나 백호까지 30m 정도가 대부분이다.

혈에서 청룡·백호까지 거리는 발복을 일으키는 시간과 관련된다.

10m : 1년 30m : 3년 100m : 10년

흉한 기운도 위와 같다.

혈에서 청룡까지 거리는 가깝고 백호까지는 먼 경우는 청룡의 영향이 먼저 발생하고 백호의 영향은 좀 지난 뒤에 발생한다.

제3장 지세에 있어 수국 형성이론

제1절 得水法

물의 에너지는 그 선약의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악성이 아닌 善性の 물을 받음이 중요하다.

너무 많거나 太過 너무 모라자리 않는 不及하지 않고 平衡性과 난폭하지 않는 安靜性이 중요한 요체다.

우선 혈심에도 수기가 있어야 한다.

혈심에 수기가 모자라면 혈심이 메말라서 에너지 응축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太過하면 수렴이 들어 혈심이 썩고 동시에 시신이 썩으면서 자손은 각종 水病(암·당뇨·고혈압) 등에 걸려 신음하고 서서히 무너져 버린다.

물은 땅의 에너지를 調潤·聚融·運搬·保護하며 龍脈·穴場에 생명 에너지를 生育·補完하는 生起的同調作用을 한다.

물이 지나치게 많으면 용맥과 혈장은 形·沖·破·殺·害의 사멸적 간섭 작용을 받아서 파괴된다.

물이 부족하면 땅이 윤기가 없고 메말라서 파괴되고 에너지 응축이 되지 않으며 散氣되어 용맥과 혈장이 사멸된다.

땅에서 처음 물이 솟아나거나 외부에서 흐르는 개천물이 처음 보이는 곳의 방위를 得水라 한다.

이런 한 물이 모두 개천·강 등 물에 합쳐 나갈 때 마지막으로 보이는 곳의 방위가 破口가 된다.

혈 앞에 나무·건물·안산 등으로 가려졌다가 다시 보이는 경우 이를 다

시 得水로 보거나 破口로 보아 득수와 파구가 각각 두 개 있는 것으로 생 각해선 안된다.⁴³⁾

1. 得水

혈심에 水氣 에너지 공급을 위해 물을 얻는 것이다.

(1) 內得水 : 현무 이하에서 생긴 물이 本身龍이 水界로 分을 이루어 청룡 과 백호 안에서 본신룡과 혈장을 調潤케 하며 감싸 흐르는 물

(2) 外得水 : 현무 이상의 바깥쪽 물과 안산·조산 등의 멀리서 혈장 앞으 로 흘러들어 모이거나 혈장을 감싸고 흘러가는 물

2. 水口

용의 끝과 물이 만나는 지점 청룡과 백호가 열싸 안은 곳을 말한다.

한지역의 물은 모두 수구로 빠져 나가므로 수구는 모두 낮은 지역에 있 다.

기능 : 물탱크의 매수 밸브와 같다.⁴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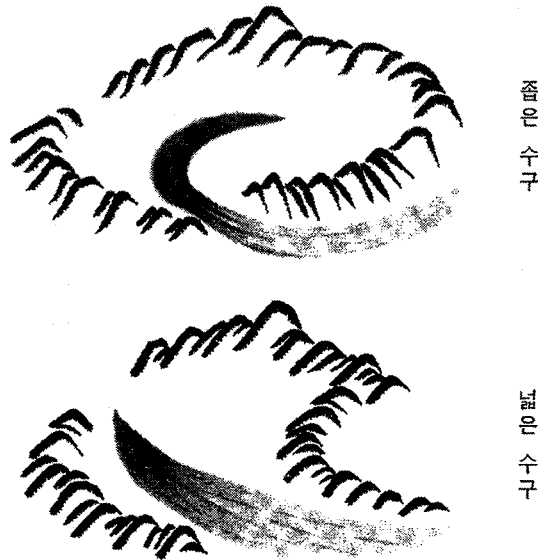
인체의 항문과도 같다. 항문은 평상시에는 닫혀 있어서 체내 기운이 외부 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생명력을 유지시킨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항문이 열려 모든 기운이 빠져 나간다.

이와 같이 수구는 지세에서 생기의 발생과 그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친다.

4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0

4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0

(1) 막힌 수구 : 산으로 가로 막혀 있는 지세에서는 물이 감싸고 돌아 나가는 형태를 말한다. 그러므로 물은 산을 돌아서 나아가지만 바람은 직접 빠져나가지 않는다. 이러한 지세에서는 생기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큰 부자가 나고 훌륭한 인물이 배출된다.



[그림29] 수구의 종류⁴⁵⁾

(2) 열린 수구 : 수구에 산이 없어 넓은 강물이나 물이 일직선으로 흘러나간다. 동시에 바람도 빠른 속도로 흘러 나간다. 이러한 곳은 생기가 전혀 모이지 않아 건강과 재물·명예를 잃게 된다.

(3) 좁은 수구 : 청룡이나 백호에 관계없이 반드시 역수를 해야 한다.

(4) 넓은 수구 : 수구가 넓어 산수 동거가 된다.

(5) 양수구 : 청룡에서 만들어진 수구

(6) 음수구 : 백호에서 만들어진 수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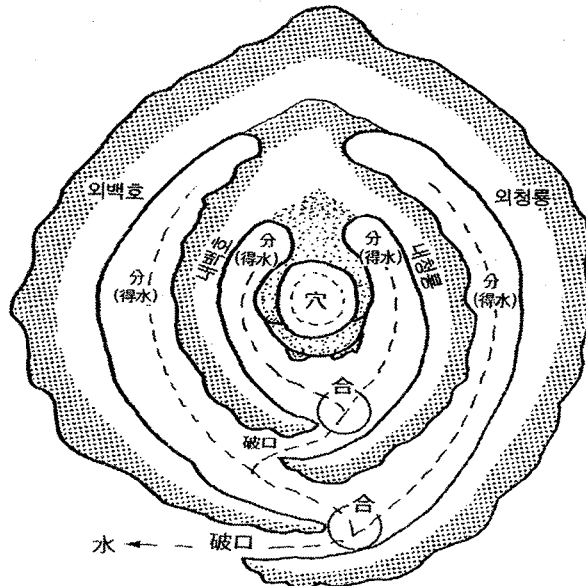
4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1

(7) 가장 이상적인 수구 : 청룡의 끝과 백호의 끝 부분이 서로 한 지점에서 합치거나 겹쳐있는 수구가 가장 길하다.⁴⁶⁾

3. 關鑊

관쇄란 문에 빗장을 걸어 자물쇠를 잠근다는 뜻으로 청룡과 백호가 혈장을 관쇄해야 한다.

또한 관쇄는 옷을 겹겹이 입고 그 옷깃을 여미어 몸을 감싸듯이 해야 한다. 용호의 관쇄는 물이 有情하게 合水되어 혈장을 감싸서 보호하고 水氣에 너지를 축척시키면서 유정하게 흘러 나간다. 뿐만 아니라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혈장을 바로 치지 못하고 나가는 물길을 따라 거슬러 들어옴으로써 혈장의 공기순환 및 조절하며 에너지를 축척시켜준다.



[그림30] 관쇄도⁴⁷⁾

4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1

47)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동학사 1994, p200

제2절 물의 방위와 형태

1. 물의 일반적 분석

(1) 혈장은 물을 받아먹는 逆水의 방향이어야 한다. 물이 나가는 방향 去水나 순수면 안 된다.

(2) 물은 혈장의 전후좌우를 막론하고 直流가 치고 들어와서는 안된다. 直射水는 혈장에 形・沖・破・殺・害을 일으키고 전순을 파괴하고 혈장을 파괴한다.

직사수는 크면 클수록 그 악이 크다.

물은 구불구불 九曲水 하게 서서히 다가와서 혈장은 감아 돌면서 유정하게 멈추고 서서히 나가야 한다.

이러한 물을 클수록 좋아 크다.

(3) 혈장 앞에 모였다 나가는 물은 구불구불하게 서서히 빠져나가야 하고 또한 나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야 좋아 크다.

(4) 물은 혈장을 감아 싸듯 彎弓水해야 한다.

물길이 혈장을 등지면 反弓水로 악이다.

(5) 直射水가 入首를 치면 장손은 요절하고 다른 자손도 무너진다.

(6) 청룡과 백호내의 물이 급하게 흘러가면서 요란한 울음소리 비슷하게 소리를 내면 줄 초상이 난다.

(7) 물은 맑아야 하고 혼탁하거나 검거나 황토물은 악이다.

2. 물의 방향⁴⁸⁾

물이 흐르는 방향은 높고 낮음과 직접 관련된다.

산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경사를 이루듯 물의 흐름도 산의 경사도와 일치하게 마련이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 서로 부딪치지 못하기 때문에 명당은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부딪치면서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하다.

(1) 山水同去 : 산의 경사도와 물의 경사도가 같은 방향을 이루는 경우의 산과 물



[그림31] 물 흐름의 종류⁴⁹⁾

(2) 逆水 : 물이 산의 경사와 반대로 흐르는 경우이며 이러한 경우에만 명당이 발생한다.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서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곳에서는 바람도 잔잔해서 마치 물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⁵⁰⁾

4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96

4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96

50)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96

3. 물의 형태

지상에서 용과 함께 흐르던 기운은 강이나 바다를 만나면 정지되어 한곳에 모인다.

그 위치는 물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지세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물의 크기에 따라서 바다·강·댐·호수·계곡·밭고랑·연못·실개천 등으로 구분된다.

명당은 바다나 강과 같이 큰물이 있는 곳에서는 형성되지 않고 개천이나 논두렁·밭고랑처럼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 형성된다.

심지어 실개천과 같은 매우 작은 물이 있는 곳에서도 명당이 형성되기 때문에 명당은 공기 중에 약간의 수분만 있어도 형성된다.

이상적인 물의 형태를 弓手라고 하는데 활의 둥근 모양이나 굽이쳐 돌아가는 형태에서 곡선 중심의 안쪽을 말한다.⁵¹⁾

예) 경상북도 안동 하회마을이 있다.



[그림32] 안동 하회마을 전경

5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95

제3절 吉水와 凶水

1. 吉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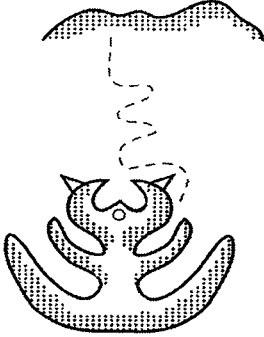
(1) 朝懷水 : 朝山에서 흘러온 물과 內得水가 마당에서 서로 만나 머무는 형태를 말한다. 이 水는 속히 發福하는 것으로 아침에 가난이 저녁에 부로 바뀐다.

이조회수는 발복 뿐만 아니라 貴도 能히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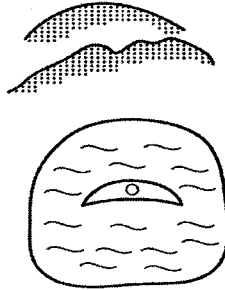
(2) 衛身水 : 龍脈이 기이하여 湖水 중에서 돈부가 突起하여 인형에 맺힌 것인데 전후좌우가 모두 洋洋한 巨浸으로 되어있다.

초생달이 江에 잠긴것 같으니 連花出水形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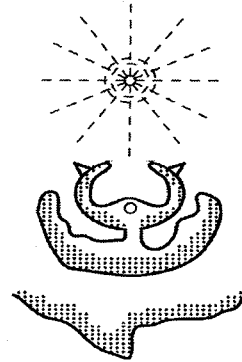
(3) 聚面水 : 諸水가 혈전에 融聚(물이 모이는 상태)한 것을 말한다.



[그림33] 조회수



[그림34] 위신수



[그림35] 취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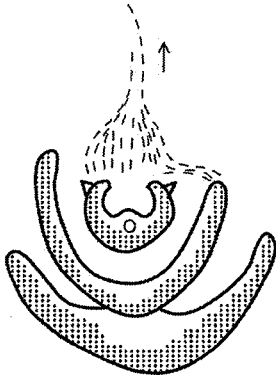
(4) 像腦水 : 수세가 혈전의 주머니속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

이랑속에 물건을 모아 쌓이므로 極富하는데 左湯하면 장부하고 右로 상하면 幼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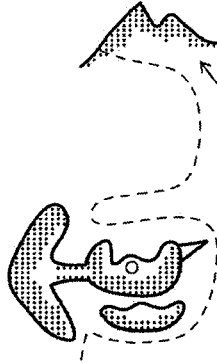
(5) 拱背水 : 공배수는 수가 穴後를 둘러싼 것이므로 부귀가 綿遠한 것이다.

(6) 九曲水 : 수의 굴곡이 玄字로 된 것을 말하니 어가수라고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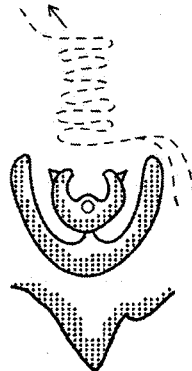
극진한 것이며 大富貴를 주장한다.



[그림36] 탕뇌수



[그림37] 공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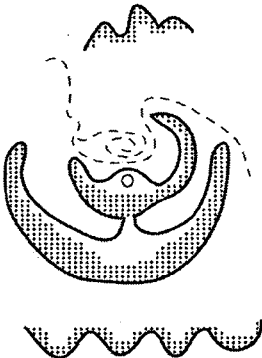
[그림38] 구곡수

(7) 入口水 : 上堂에 逆砂가 있어서 난수된 수를 말한다. 반드시 入口로서 귀가 되는 것이며 발복이 가장 快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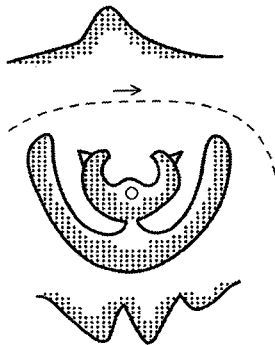
(8) 腰帶水 : 抱가 束帶한 것과 같은 것을 말하며 最吉이다.

(9) 倉板水 : 창판수란 田原水의 대조를 말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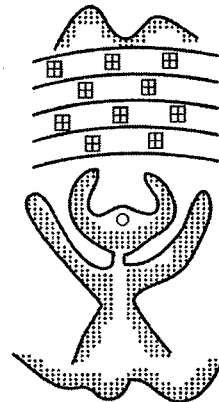
貴하며 富는 고을에서 으뜸이다.



[그림39] 입구수



[그림40] 요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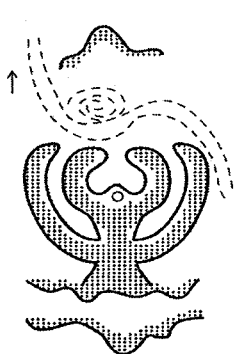


[그림41] 창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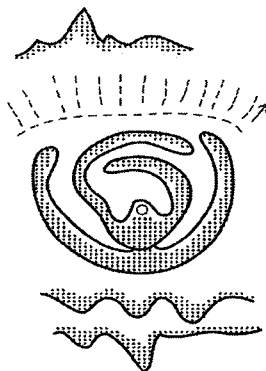
(10) 廻流水 : 회류수란 旋轉逆廻하는 것을 말한다.

(11) 暗拱水 : 혈에서 보이지 않는 물이 砂 밖으로 朝・抱・娶된는 것을 말하고 情이 있으므로 해롭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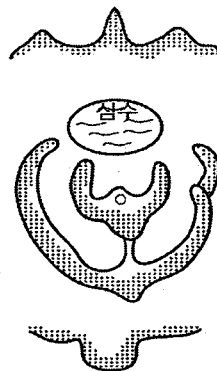
(12) 融緒水 : 깊은 물이 죽취되어 흐르는 것을 말하며 이 水는 巨富가 나오고 貴顯이 悠久한다.



[그림42] 회류수



[그림43] 암공수



[그림44] 웅서수

2. 凶水

(1) 鳴珍河水 : 수가 전굴곡이나 석벽에 들어 물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것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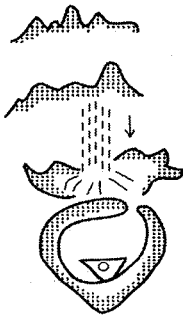
(2) 瀑面水 : 혈성이 저소한테 수세가 웅기한 것을 말하고 人丁이 왕하지 못하니 낙수는 亡이기 때문이다.

만약 穴後에 高山이 托樂하면 꺼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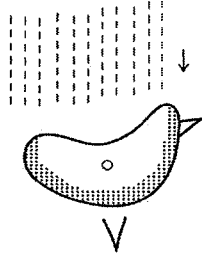
이것은 혈은 작고 수세는 큰 것을 말한다.

(3) 衝心水 : 급류가 곧게 쫓려 품에 들어오는 것으로 峻急直射로 不可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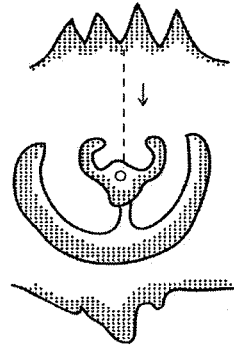
이것은 子息이 빈한하다.



[그림45] 명진하수



[그림46] 폭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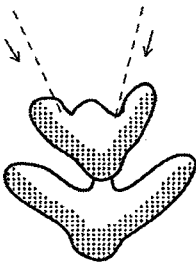


[그림47] 형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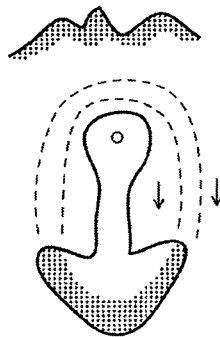
(4) 射脇水 : 수가 좌우 옆구리를 쏘는 것이다. 直은 射요 橫은 穿이니 모두 흉한 것이다.

(5) 裏頭水 : 이두성수를 말하는 것이고 온역을 부르고 빈한 고약하여 부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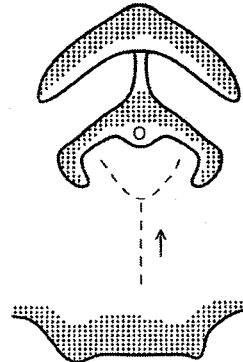
(6) 牽鼻水 : 元長水가 빗겨 끌려나와 일향무속한 것을 말하고 이수는 主가 퇴전·재산·냉파·산재 및 小亡 고과부진이다.



[그림48] 사협수



[그림49] 이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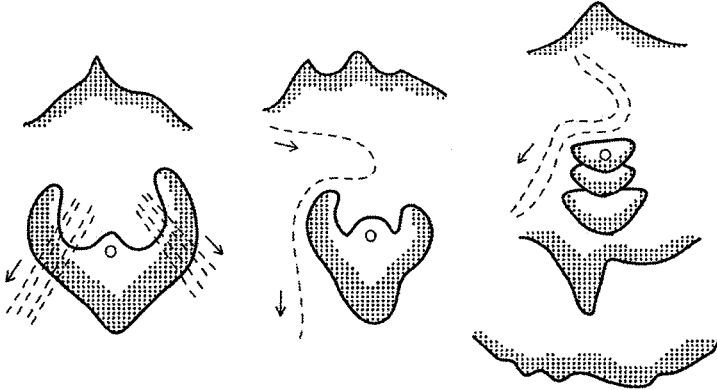
[그림50] 견비수

(7) 穿臂水 : 혈의 좌우를 점세한 것이니 구덩이는 패이고 깊이 빠져있는 것이므로 不吉하다.

(8) 反身水 : 수가 穴前에 이르렀다가 반대로 나가는 것을 말하고 가산이 기울어지고 끝내는 멸절한다.

(9) 割脚水 : 穴의 여기가 없어 水가 脚을 두들기는 것이다.

主가 빈한하고 끝내는 절멸한다.



[그림51] 정비수 [그림52] 반신수 [그림53] 할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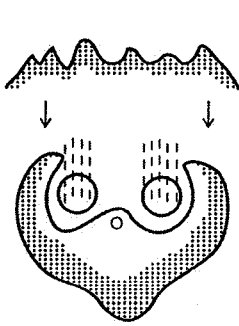
(10) 漏腮水 : 혈의 兩쪽에 샘구멍이 있어서 淸冷한 물이 장류하는 것이며 가없이 퇴락되고 겹겹살육하며 남여간에 치루가 있다.

(11) 淋頭水 : 穴뒤에 맥이 없어서 골이 패여서 물이 墓頭에도 흐르는 것이다. 대개 水는 용맥을 경계 짓는 것인데 골이 패인 곳이라면 氣脈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곳은 인정이 끝이고 마침내 절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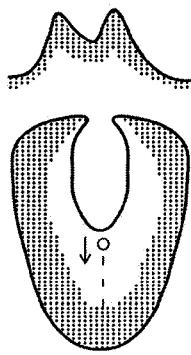
와점의 혈은 이것이 아니다.

(12) 交劍水 : 穴前에서 二水가 相交하는 것을 말하며 맥굴기절하므로 地가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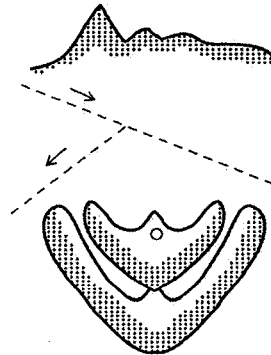
이수가 마주보고 오는 것도 흉이다.



[그림54] 누시스



[그림55] 림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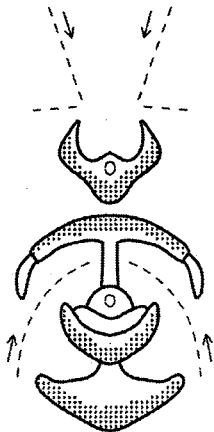
[그림56] 교검수

(13) 分流水 : 물의 양쪽으로 분리하여 흐르는 것으로 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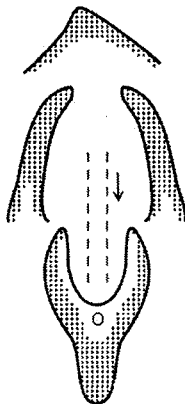
(14) 漏槽水 : 穴下가 침루하여 곧게 기울어진 것이 말 구유통과 같이 생긴것을 말한다. 이곳은 가산·小亡 패화가 있다.

(15) 捲簾水 : 穴前에 水가 경실하여 나가는 것이다. 이는 가산을 탕진하고 소망 고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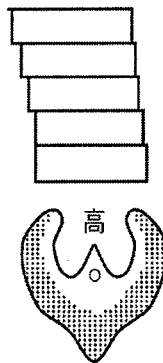
(16) 사별수 : 물이 堂에 이르지 않고 빗겨 흘러가는 것이다. 이것은 퇴관 실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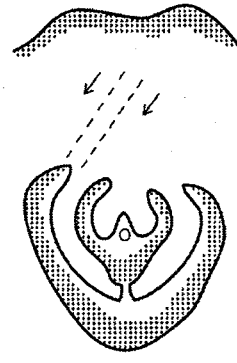
[그림57] 분류수



[그림58] 누조수



[그림59] 권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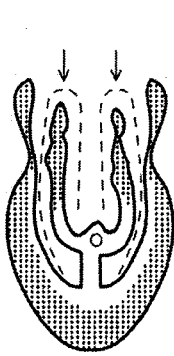
[그림60] 사별수

(17) 流泥水 : 혈전에 水가 기울어 흘러가고 砂가 물을 따라 빠져 가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타향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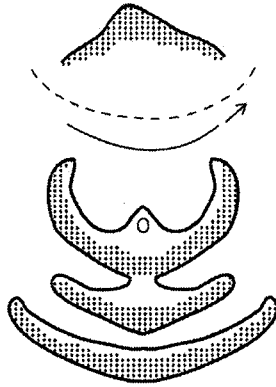
(18) 反挑水 : 反身背成의 수를 말한다. 이수가 極히凶 할 것이다. 패역한다.

(19) 形殺水 : 水가 난리하게 交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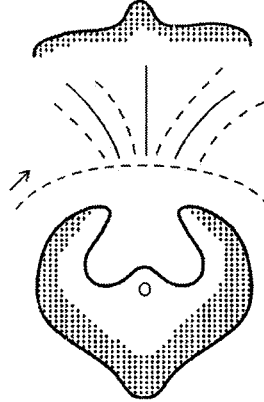
이수가 경할 경우에는 폐의에 그치나 重하면 살육 익사한다.



[그림61] 류니수



[그림62] 반도수



[그림63] 혈살수

제4절 胞胎法과 黃泉水

1. 抱胎法

龍 즉 山과 水와의 어우러지는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물이 나가는 破口를 활용한다.

오행 중에는 土를 제외한 木·火·金·水 많을 사용하는데 土를 제외한 이유는 土는 중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방위가 없기 때문이다.

水는 어느 방향으로 든 흘러가기 마련이므로 커다란 호수가 있어 파구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그곳에서 호수로 들어가는 물의 方位를 破口로 해야

한다.

그러나 파구가 전혀 없는 경우도 간과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入首龍으로 포태법을 사용한다.

평상시에나 또는 가뭄 등으로 물이 없어 파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파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비가 온다면 반드시 빗물이 나가는 破口가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매우 유의해야 한다.

胞胎란 胞·胎·養·生·浴·帶·官·旺·衰·病·死·葬의 용어로서 인생의 12단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포로 씨앗 속에 있는 상태, 태란이 모태에서 정자와 난자의 배합으로 만들어진 상태, 생이란 모태에서 상당히 자란 상태 즉 태와 생은 출생을 나타내며 욕이란 목욕 대란 출세하기 위해 옷을 입은 상태, 관이란 출세하여 벼슬길에 있는 상태 왕이란 최고로 왕성함을 이르고 쇠란 노쇠라고 쇠퇴한 상태, 병이란 병든 상태, 사란 죽은 상태이고 장이란 장사지내는 상태이다.

포태의 길흉 판단은 포·태·양의 상태는 인간이 되지 못한 미완의 작품으로 흉, 생이란 영광된 것과 동시에 번영하는 것이다. 왕릉에서 가장 선호한다.

대·관은 길하다. 욕은 목욕을 의미하니 목욕을 하려면 옷을 벗어야 하므로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도화살도 본다. 그러나 약간은 재물 복은 있다. 도화살은 연예인들은 성공의 비결이다.

왕은 최고로 번성한 상태이니 길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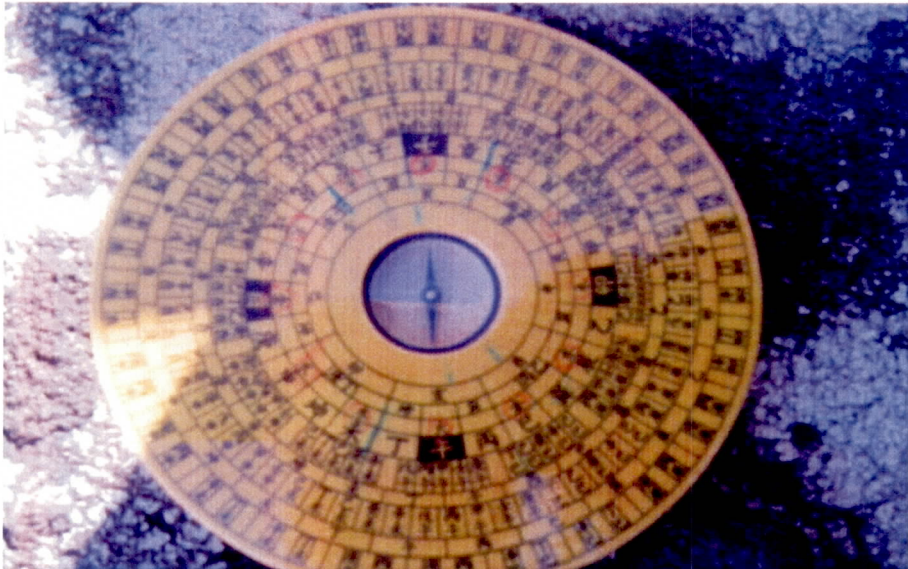
그러나 하향의 예견으로 불만족하고 쇠는 병이 들기 시작한 것이고 병은 중병으로 고치기 힘든 것이며 사는 죽은 것이다. 장은 장사지내는 것으로 흉이다.

2. 黃泉水

지구에 3분의 2는 물이 차지하고 있다. 물에는 음수와 양수가 분별되어 있다.

양수는 지상에 보이는 물을 말함이요, 음수는 지하에 있는 모든 물을 말하는 것인데 지상 양수 중에도 음양수가 있고 지하 음수 중에도 음양수가 있다.

황천수란 음수 즉 지하수를 말함인데 지하수 중에도 음양수가 있는바 지하양수란 패철에 표시된 辰·寅·申·酉·亥·卯·巳·午 8방위가 지정되어 있어 이 방위로서 지하에 스며들어 오는 천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물을 황천양수라고 한다.



[그림64] 2층이 황천수를 보는 방위

이 물이 묘지 광대로 스며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패철에 의하여 측정한다.

예) 壬坐, 子坐, 癸坐라면 당관 중심부로부터 약 2~8m 지점인 辰方을 보

아 그 방위가 허약하면 황천수가 스며들게 되는 것이다.

지하 황천음수는 방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묘지의 상·하·전·후·좌·우를 막론하고 지하 자생수가 묘지 광대로 스며들어 오는 물을 말함인데 이 물을 황천음수라고 한다.

이것은 당판 및 주변 형태에 따라 자생음수가 생길 수 있으나 없느냐를 육안으로 잘 관찰하여야 한다.

제5절 물의 陰陽과 샘물

1. 물의 음양

(1) 용호에 따른 음양수

청룡에서 흘러 나오는 물인 청룡수를 양수라 하며 백호에서 유출되는 물인 백호수를 음수라 한다.⁵²⁾

(2) 방위에 따른 음양수

24방위 중에 甲丙庚壬은 陽干으로 이 방위에서 발현하는 물은 양수이고, 乙丁辛癸는 陰干으로 이 方位에서 발현하면 음수이다.⁵³⁾

(3) 좌우측의 흐름에 따른 음양수

좌측에서 시작하여 우측으로 흐르는 물은 양수, 우측에서 시작하며 좌측으로 좌행하는 물은 음수라고 한다.⁵⁴⁾

52)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p86

53)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p86

54)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p86

(4) 음래양수 양래음수

풍수에서는 물이 모이는 것으로 생기의 활동을 꺾하기 때문에 음수가 오고, 양수가 이를 받아 양수가 오면 음수가 받아야 하는 것이다.

물은 낮은 곳을 따라서 흐른다.

그 흐름은 결코 일직선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다. 직류하며 변화가 없는 물은 자연성이 없다.

산도 생기가 있는 용은 구불구불 변화가 있다.

물의 성질은 원래 동이다. 그러므로 생기 있는 물은 산에 변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굴곡이 있어야 한다.

좌우로 굽어야만 비로소 생기 있는 물이라 할 수 있다.

↙ 좌에서 시작하면 양래이고 ↘ 우로 흘러가면 음수이다.

↖ 우에서 시작하면 음래이고 ↗ 좌로 흘러가면 양수이다.

즉 물이 흐르는 좌우로 굽어 진행되는 것을 음래양수·양래음수라 한다.

풍수에서 변화하지 않는 직류수를 꺼리는 것은 독양, 독음으로서 음양의 충화를 이룰 수 없고 따라서 생기가 활동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의 음양은 단순히 음양충화를 이루며 생기의 활동을 도울 뿐만 아니라 양수는 남자를 관장하고 음수는 여자를 관장한다.

묘지 앞의 물은 양수·음수의 양자가 서로 합치는 것이 최상이며 음수가 우세하면 그 자손에 여자가 많이 나오고 양수가 우세하면 남자가 많이 나온다.

물이 혈에 대해 흉방에서 나오든가 또한 심한 냄새가 나는 경우에는 이 양자는 모두 淫水이며 음란한 남녀가 나온다.⁵⁵⁾

55)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p87

2. 샘물

(1) 嘉泉 : 그 맛이 달고 색깔이 옥과 같으며 향기가 나고 사시사철 넘치거나 마르지 않는다. 이 샘이 음혈 근처에 있으면 용의 기세를 왕성히 해줌으로 부귀를 가져오며 양기에 있는 것은 마시면 부귀장수 할 물이다.

(2) 醴泉 : 물이 마치 단술과 같이 달다는 뜻이며 이 물은 성탁의 상스러운 물로 이 샘이 솟아나면 장수한다.

(3) 溫泉 : 용의 생기가 왕성한 까닭에 물이 끓어서 솟아나는 진혈이다. 따라서 부귀가 많다.

(4) 礦泉 : 용의 기운이 광석에 모여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대개는 광석의 색깔이 붉은 색을 띤다. 생기가 광석에 모이면 보석이 된다. 따라서 그 부귀발복한다.

(5) 龍泉 : 땅속 또는 바위에서 솟아나는데 잠깐 일어났다가는 금방 없어지는 마치 조수의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地氣를 누설하는 것으로 陰宅에서는 꺼린다.

(6) 濺泉 : 구멍에서 솟는 것처럼 나오며 차디차서 초목이 말라죽는 기운이 있는 물로 가장 흉한 물이다.

(7) 沒泉・黃泉 : 물이 땅으로 잠입하는 것으로 비가 오면 물이 갑자기 불어나지만 비가 그치면 금방 땅속으로 물입하여 언제나 바싹 마른 곳이다. 이런 곳은 龍氣가 헛되어 소모되므로 음택으로도 좋지 않으며 그곳 주민들은 빈곤함을 면할 수 없다.

(8) 冷泉 : 맑고 차디찬 물이 나오며 極陰의 기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음결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샘물이 있으면 고약한 치질에 걸리거나 땅의 기운이 새어나가서 가산을 허비하게 된다.

(9) 瀑布 : 이것은 끈어지는 기슭에 걸린 飛泉이다.

그 대소나 형상에 따라 눈물 같고 물로 된 발 같으며 혹은 칼날이나 떠들썩한 우레 같고, 북을 치거나 울부짖으며 호소하는 듯하여 그 형세가 일정하지 않다.

음기로 인해 사람이 이런 곳에 있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음택이나 양택으로는 알맞지 않다.⁵⁶⁾

56)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p97

제4장 사례연구

제1절 물과 염의 관계

1. 지세

많은 사람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넓은 들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들판 주변을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 바람을 막아 주어야 생기가 든다. 산에 둘러싸이지 않은 들판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 생기가 모이지 않게 되므로, 큰 재물이 모이거나 큰 인물이 배출되기 어렵다. 들판을 둘러싸고 있는 산은 여러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형태에 따라 들판의 기운도 달라진다.⁵⁷⁾

2. 지세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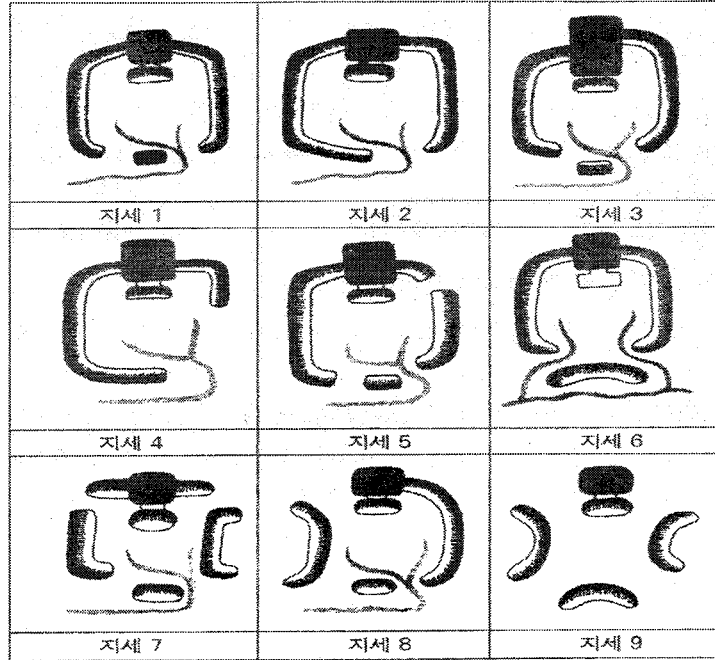
(1) 분지로 구성된 지세

전체적으로 솔뚜경과 같이 둥글고 평탄하면서 땅의 중심 부분이 언덕이나 분지와 같이 솟아 있는 지세며 金盤形 지세라고 한다.

이러한 지세는 오행산으로는 토산에 속한다. 이러한 지세는 알맞은 높이의 중심부를 정점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면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외곽에 강물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반형 지세에서는 어느 곳이나 집터로 좋은데 특히 좋은 곳은 기운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정산 부분이나 앞 부분이 제일 좋다.⁵⁸⁾

5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2

5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4



[그림65] 지세의 여러 종류⁵⁹⁾

지세 1 명당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

지세 2 백호와 안산이 연결된 명당. 크게 늘어나서 재벌이 되며, 특히 여성이 크게 출세한다.

지세 3 주산에서 청룡과 백호의 연결점이 다른 상태의 명당.

지세 4 也자 형태의 명당. 청룡이 짧은 것이 흠인 반면 백호가 감싸고 있어 명당에 속한다.

지세 5 청룡의 상부는 끊어졌으나 보조격을 이룬 형태. 집안의 재산이 크게 일어나지만 장남은 좋지 않게 된다.

지세 6 주산·청룡·백호는 좋으나 안산이 배반격 형태로 물이 양쪽으로 흘러 나간다. 주변으로부터 험담을 듣게 되며 가족들이 흩어져 살게 된다.

5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3

지세 7 청룡 상부가 끊어지고 배반격이며, 백호는 상부는 끊어졌으나 보조격이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배반당한다.

지세 8 청룡이 좋아서 남자들은 출세한다. 그러나 백호 상부가 끊어지고 배반격이

여서 여자가 재물을 가지고 가출할 수 있다.

지세 9 주산·청룡·백호·안산 모두 배반격이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외롭게 살게 된다.

(2) 원형이나 사각형 산 울타리 속의 지세

들판을 중심에 두고 산이 동서남북 사면으로 등글게 감싸고 있는 형태는 가장 좋은 지세다. 이러한 원형 지세에서는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이 회전 운동을 일으켜 가장 큰 생기가 모여 명당을 이룬다. 정사각형 들판도 원형 들판과 같이 생기가 많이 모인다. 그러나 들판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형태에 따라 기운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 산의 형태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⁶⁰⁾

① 4산원형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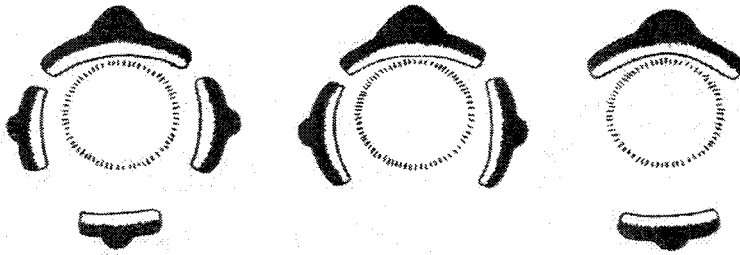
산 4개가 원형 또는 정사각형 들판을 중심으로 전후좌우 사면으로 감싸고 있는 들판의 형태로 가장 이상적인 명당이다. 이러한 지세에는 바람이 부드러워 생기가 많이 모이고 분위기도 평화로워 재물이 많이 모여 큰 인물이 많이 배출된다.

4산원형 지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산 4개가 모두 들판을 향해 앞면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⁶¹⁾

만일 산의 뒷면을 보이고 있으면 명당을 이룰 수 없다.

60)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4

6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4



4산 원형 지세

3산 원형 지세

2산 원형 지세

[그림66] 지세의 종류⁶²⁾

② 3산원형지세

3산이 들판을 중심에 두고 원형으로 감싸고 있는 지세를 말하는데 이러한 지세에도 생기가 많이 모인다. 4산 원형 지세보다는 생기가 약하다.⁶³⁾

③ 2산원형지세

2산이 들판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 보면서 원형을 이루고 감싸주는 지세를 말한다.⁶⁴⁾

(3) 삼태기지세

산 중심이 높이 서 있고 좌우가 벌어져 있으며 그 중간에 평탄한 들판을 이루고 있어 삼태기와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산의 지세를 말한다.

중심의 높은 봉우리는 주산이 되며 좌우로 벌어진 능선을 청룡과 백호가 된다. 이러한 지세에도 생기가 모여 명당이 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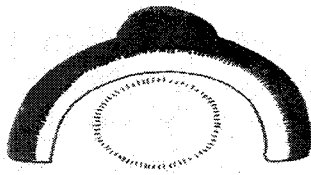
삼태기 지세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산 중심 부분이 높아서 중심에 기운이 모여 있어야 진혈이다. 만약 기운이 중심에 모이지 않고 좌우로 빠져 나가는 지세라면 결코 생기를 이루지 못한다.

6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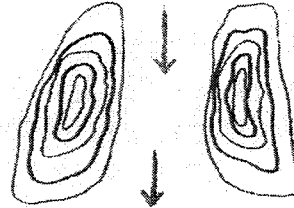
6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5

64)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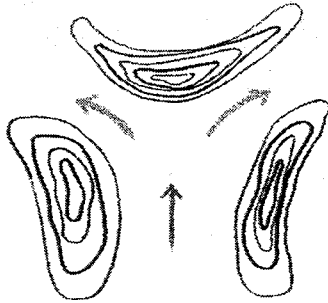
또 좌우로 벌어진 능선이 들판의 중심을 향해 앞면을 보이고 있어야 한다. 등을 보이고 있으면 생기가 발생하지 않는다.⁶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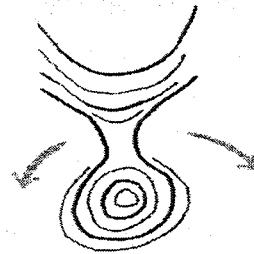
삼태기 지세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



Y자형 지세



말안장 지세

[그림67] 지세의 종류⁶⁶⁾

(4)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

2산의 능선이 서로 평행을 이루며 길게 뻗어 내려가는 사이에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을 이루는 들판의 지세다.

이런 지세는 계곡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계곡 사이로 부는 바람이 강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회전운동을 하지 못해 생기가 모이지 않는다. 이런 지역에 집을 짓고 살면 중풍에 걸리기 쉽다. 또한 이러한 곳에 묘지를 쓰면 수렴이 들 염려가 있다.⁶⁷⁾

65)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6

6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6

67)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6

(5) Y자형 지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산 사이에 골짜기를 이루고 있고 그 골짜기 끝 부분에 다른 산이 놓여 있어서 마치 Y자 같은 형태나 삼거리 같은 형태를 이루는 지세를 말한다. 이런 지세의 형국에는 바람이 빠르게 불고 땅과 하늘의 기운이 회전운동을 일으키지 못해 생기가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Y자 중심부에서는 언제나 급한 바람이 부딪치게 되므로 이러한 곳은 매우 위험한 자리다. 이러한 터에 묘소나 집을 지으면 병어리가 되거나 건강을 잃고 가족 사이에 불화를 면치 못한다. 68)

(6) 말안장 지세

산의 능선이 연결되어 내려오다가 잠시 평탄해진 뒤 다시 높이 올라가서 중심 부분은 낮고 앞면과 뒷면은 높아 말안장과 같이 된 형태를 말한다. 산마루턱 위치가 대표적인 말안장 지세다. 이런 지세에서는 능선 중심에서 볼 때 물이 좌우로 분산된다. 또 산마루는 바람이 통과하는 공간이므로 땅의 기운과 하늘이 기운이 회전운동을 이루지 못해 생기가 발생되지 않는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명당이 이루어 질 수 없다. 69)

(7) 산이 없는 평탄한 땅

우리나라에는 산이 없고 평탄하고 넓은 평야가 그리 많지 않지만 중국이나 미국·아프리카·러시아처럼 땅이 넓은 지역에서는 이런 곳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런 넓은 평야는 바람을 막아주는 산이 없으므로 바람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 이런 빠른 바람은 땅의 기운을 분산시킨다.

따라서 생기가 모이지 않으므로 큰 인물이 나오지 않으며 재물도 모이지

6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7

69)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7

않는다. 평야 지대의 땅 기운은 전체적으로 비슷해 건물 주변에 나무를 심을 경우, 바람을 막아 주지만 생기는 부족하다.⁷⁰⁾

3. 산세를 분석하는 방법

묘지나 집을 지을 때 주변을 둘러보면 산이 전혀 없이 평탄한가 하면, 산이 한 개 또는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다. 산은 한 지역 기운을 대표해서 나타내고 있으므로 땅의 성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산의 기운부터 분석해야 한다. 산의 기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주산과 그 주변에 있는 산의 배치 관계부터 파악해야 한다. 지세를 단계별로 분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산의 앞과 뒤를 구분한다. 생기가 모이는 공간은 산의 앞면이므로 이곳을 선택한다.

② 산봉우리를 중심으로 품격·체형·오행산을 구분한다. 산은 품격에 따라 주인격·보조격·배반격으로 구분하는데 주인격 산이 가장 좋고, 보조격은 그 다음으로 좋다. 배반격은 좋지 못하므로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산의 체형을 볼 때도 강체와 중체를 고르도록 하고 약체는 가급적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병체인 산은 절대 고르지 말아야 한다.

③ 산 정상에서 연결되어 내려오는 중심 용(능선)을 찾는다.

④ 청룡과 백호 안산을 살핀다. 이들 용호(청룡·백호)가 앞쪽으로 면하고 있으면 생기를 만들어서 좋지만 뒤쪽을 바라보고 있으면 배반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으므로 좋지 않다.

70)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8

⑤ 물이 흐르는 모양과 수구를 살핀다. 물이 곡선으로 흐르며 역수하는 곳이 명당이다. 수구는 좁아야 좋다.

⑥ 중심 용의 중간 부분에서 명당르 찾는다.

⑦ 방위를 분석해서 묘지의 좌향을 정한다.⁷¹⁾

4. 수렴

묘지의 광중에 물이 있음을 수렴이라고 한다.

대개 지하수로 또는 땅의 강유(단다하고 무른 것)가 고르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온수와 냉수의 차이도 있지만 산형의 지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묘지를 잘못 정하여 땅에 습기가 많아 관 속에 물이 차는 것을 수렴이라 하며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심지어는 시신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예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신이 까맣게 되고 불어서 매우 흉하다. 매장할 때는 물이 없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땅속 수분 때문에 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훈손들에게도 병이 생긴다.⁷²⁾ 또한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에서 골짜기 물의 영향을 받아 수렴이 들 수도 있다.

5.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에서의 수렴 사례

① 지세

두 산의 능선이 서로 평행을 이루며 길게 뻗어 내려가는 사이에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을 이루는 지세이며 이러한 지세는 계곡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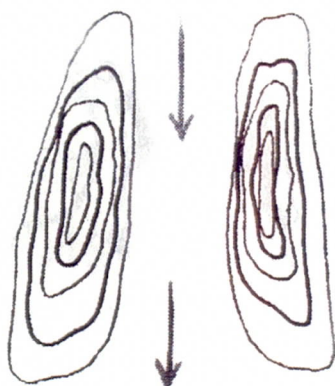
71)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9

72)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75

계곡 사이로 부는 바람이 강하고 하늘과 땅의 기운이 회전 운동을 못해서 생기가 모이지 않으며 골짜기 물이 계곡 쪽 화살표 방향으로 흐르다 매장으로 인한 땅의 강유로 땅 속의 수분 때문에 수렴이 들 수 있는 지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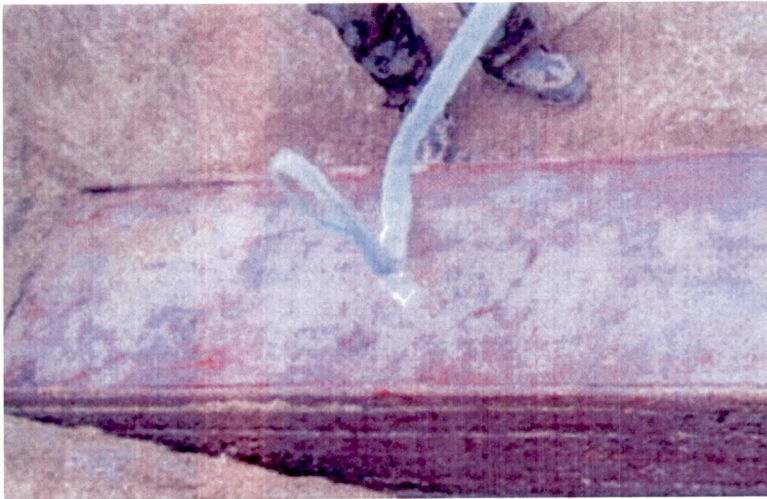
[그림68] 직사각형의 골짜기 지세의 묘지



[그림69]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⁷³⁾

73)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86

- ② 묘지위치 : 충북 제천시 송학면 00리
- ③ 묘지감정 : 2003년 5월 2일
- ④ 토질 : 마사토
- ⑤ 매장 : 약 7년
- ⑥ 확인 : 2003년 6월 6일 개장 후 화장(제천화장장)
- ⑦ 결과 : 장례를 치른지 약 7년이 경과 되었으나 棺속과 밖에 물이 팍찬 상태로 시신은 검고 낙골이 되지 않았고 棺도 통통 붙어 있었다.



[그림70] 광중안의 물의 모습

⑧ 사유 :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로써 계곡 사이로 바람도 강하고 바람으로 인하여 생기도 모이지 않으며 특히 계곡의 물이 오갈 때 없이 묘지로 침범할 수밖에 없었다. 매장시 석회다지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 곳의 땅이 강유로 인하여 땅 속 수분이 묘지 광중으로 침범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면 후손에게도 병이 생긴다. 실제로 후손에게서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 화장을 한 경우이다.

제2절 수맥이 묘지에 미치는 영향

1. 水脈

(1) 물 : 風水라는 용어가 말하듯이 물은 우리 인간이 사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액체 상태의 물은 태양계의 행성 중에서 지구만에 있는 자원이다. 지구상의 물은 92% 정도가 바다에 모여 있고 8%정도가 지하수 또는 지표수로 되어있다. 이 물의 양은 약 13억 6천 톤 정도가 된다고 한다.

인간은 하루 약 2.5리터 정도의 물을 섭취하고 땀이나 오줌 등으로 배출하는 순환작용을 통해 살고 있다.

보통 체액의 5% 정도를 잃게 되면 위험한 상태라고 한다.⁷⁴⁾

(2) 地表水 : 땅 위에 고여 있는 물로 강물·냇물·호수·연못 등이 있다.

(3) 地下水 : 땅 속으로 스며드는 물로 건수·생수·온천수 등이 있다.

(4) 乾水 : 땅 속에 스며들었다가 한발이나 기온차에 의해 마르거나 흙이나 암석에 의하여 흡수되는 물.

74) 임준, 좋은 땅 좋은 집, 한국자료정보사 1993, p31

(5) 生水 : 지하 깊이까지 스며들어가 水脈에 까지 연결되어 합류해 흐르는 물로 한발이나 기온차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다.

(6) 溫泉水 : 같은 지하수이면서도 더욱 깊이 지하층을 뚫고 들어가 地熱에 덥혀진 물.

(7) 水脈 : 수맥의 깊이는 지형에 따라 다소 다르긴 해도 1차적 수맥의 원수인 생수가 있는 것이 1~3m이고 그 다음 수맥이

1차적으로 보통 10~20m 어간에 있다.

2차적으로는 100~150m 어간에 있다 이것이 일명 암반수다.

빗물이나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이 1차적 수맥에 까지 침투해 들어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약 20~30여 일이나 된다.

그래서 1차적 수맥의 양도 한발이 20~30일 이상 극심하거나 酷寒이 계속 될 경우 그 양이 감소한다.⁷⁵⁾

수맥은 혈맥과 같아 순환 작용을 계속 한다. 즉 인의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한 것과 자연적인 샘이 그것이다.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는 깨져야만 한다.

그것은 물줄기를 공급받기 위한 자체운동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自塊현상이다.

2. 水脈 찾는 法

(1) 나무가지 사용법

물을 좋아하는 나무 즉 버드나무 가지 중 끝 부분이 Y자 모양으로 벌어진 가지를 꺾어 잘려진 부분을 앞쪽으로 해서 양손으로 수평선이 되게 쥐고 이동하면 수맥이 있는 부분에 이르면 버드나무 끝 부분이 땅 쪽으로 휘어

75) 임응승, 수맥과 풍수, 양정사 1991, p34

져 내려가는 증상을 보인다.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흡수하고 식물로서 잘려진 부분이 물이 있는 곳을 향하려는 성질이 있다.⁷⁶⁾

(2) 추 사용법

재료는 아무것이나 상관없다.

즉 돌맹이 · 동전 · 금 · 은 · 동 · 철 · 상아 등등 작은 밤알만한 크기면 된다.

동전으로 하자면 500원 짜리 정도의 것, 약간의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끈이나 가는 쇠사슬로 끼거나 묶어서 10cm가량의 길이로 하여 가볍게 손에 쥐고 무념의 상태로 이동하다 보면 수맥이 지나가는 곳에서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

그 느낌을 간직하여 여러번 반복 연습하면 어느 정도 알수있다.⁷⁷⁾

(3) 엘레드 사용법

L자 모양의 가는 구리철사. 두개를 짧은 쪽을 잡고 긴 쪽을 앞으로 해서 양손으로 수평선이 되게 쥐고 팔꿈치를 몸에 살짝 붙이고 이동하면 수맥이 흐르는 부분에서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수맥이 흐르는 부분을 지나면 원위치가 된다.

그러다 또 다른 수맥이 있으면 다시금 교차하고 수맥이 있는 방향 쪽으로 움직임을 할 수 있다.

이 또한 움직임을 잘 포착하여 연습하면 알 수 있다.

76) 임응승, 수맥과 풍수, 양정사 1991, p46

77) 임응승, 수맥과 풍수, 양정사 1991, p47

(4) 기타 방법

수맥이 지나가면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상하로 금이 가고 갈라진다.⁷⁸⁾

논둑이 해마다 무너지는 곳, 산사태가 나는 곳 등 육안으로 판단이 되는 방법도 있다.⁷⁹⁾

3. 수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인 방에서 잠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잔 사람은 그 氣에 의하여 중풍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는다.

특히 사람이 잠잘 때는 뇌가 쉬고 이튿 날 일을 하기 위한 충전을 하여야 하는데 수맥과가 뇌를 귀찮게 하는 것과 같다. 그로인해 불면증이 오고 신경성 두통이 오게 된다. 임산부가 노약자는 수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짐승도 개나 소는 수맥을 싫어한다. 일례로 수맥이 있는 방에서 강아지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러나 물의 성질상 수맥이 발생하는 기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는 것만은 사실이다.⁸⁰⁾

4. 수맥이 지나간 묘지의 사례

① 묘지와 수맥

균형을 잘 이루었고 안정되어 조화가 잘된 지세면 사신사 또한 잘 갖추어진 혈장으로 이러한 지세면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명당이라도 수맥이 지나가면 그곳의 땅은 습하고 습이 있으면 잔디는 잘

78)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5

79) 임응승, 수맥과 풍수, 양정사 1991, p49

80)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5

자라지 않으며 잡초인 왕띠·쭈·토끼풀·미나리 등 수맥을 좋아하는 풀이 자라고 무덤이 꺼지고 흙은 흘러내려 묘지의 봉분이 적어 질 수도 있으며 묘지의 묘테석인 돌도 갈라지며 유골은 검게 변하고 심하면 삭아서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기도 한다.



[그림73] 수맥으로 인하여 묘테석을 철사로 동여 멘 모습



[그림74] 수맥으로 인하여 묘테석이 갈라진 모습



[그림75]

화살표 방향으로 수맥이
지나간 유골 모습
수맥이 지나간 곳은
삭아서 없어진 상태다.

- ② 묘지위치 : 충북 단양군 대강면 00리
- ③ 묘지감정 : 2006년 8월 5일
- ④ 토질 : 점토질
- ⑤ 매장기간 : 약50년
- ⑥ 확인 : 2006년 9월 11일 개장후 화장
- ⑦ 결과 : 사진에서 보듯이 묘테석은 갈라지고 동여메고 유골또한 두상 부분은 그대로 괜찮았지만 상체 부분은 색이 검고 유골이 삭아서 약해지고 하체 부분은 삭아서 없어진 상태이다. 그 부분으로 수맥이 지나고 있었다.
- ⑧ 사유 : 수맥은 물의 성질상 발생하는 기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측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

제3절 묘지의 매장법과 물의 관계 사례

1. 매장방법

(1) 석회다지기(회장석)

석회 : 석회석을 소성하여 탄산칼슘으로 변형 시킨 것으로 흙과 50대50 비율과 적당량의 물로 혼합시키면 단단하게 굳는다. 그 강도는 시멘트를 능가한다.

석회다지기는 가급적 두텁게 할수록 좋다.

광중은 생 땅을 뚫어서 상처를 낸 곳이므로 물과 바람과 나무뿌리 동물·곤충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튼튼하고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사람도 상처를 입으면 봉합을 한다.

특히 요즈음 장비로 광중 작업을 하기 때문에 땅의 상처가 더욱 심하다.

땅은 한번이라도 파헤치면 地기도 빠져 나가겠지만 그곳이 제일 무른 땅으로 변한다.

예) 지하에 매장된 고유물 발굴시 그곳 흙의 단단함으로 알 수 있다.

장점 : 수분(물) 조절 기능을 한다.

수렴 · 목렴 · 화렴 · 풍렴 등 각종 렘의 피해를 줄여준다.

동 · 식물 · 곤충의 피해를 막아준다.

바람을 막아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상처를 봉합하여주는 것이다.

단점 : 석회이동이 불편하다.

이동 및 작업시 냄새가 나고 인체에 해롭다.

산에서 물과 혼합이 어렵다.

특히 옛날처럼 완고하게 하려면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



[그림76] 약 200년 전의 회장석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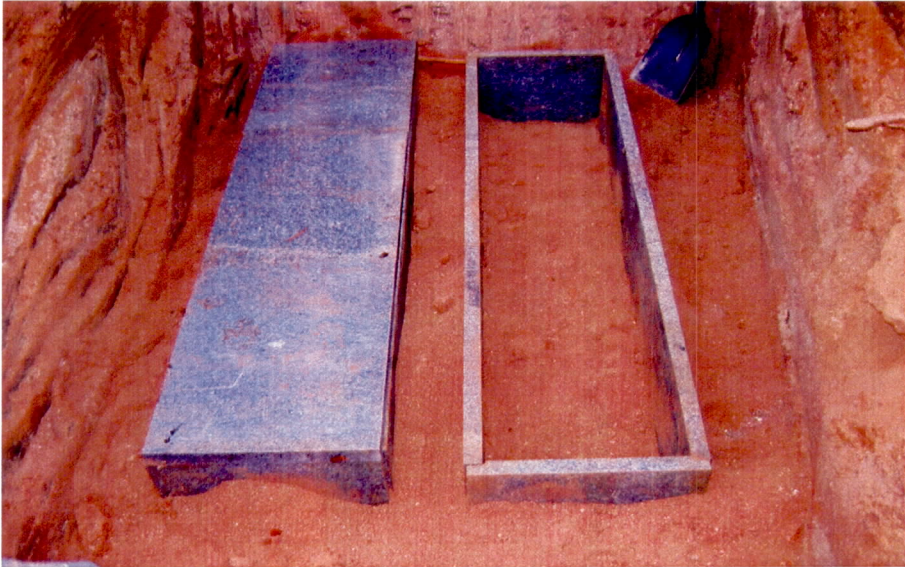
(2) 석관

돌(화강암)로 만든 관으로 매장 시 광중안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장점 : 시공이 편하고 육안으로 보기가 좋다.

가격이 저렴하다. 동물 · 곤충의 피해를 막아준다.

단점 : 수분 조절 기능이 미약하다.



[그림77] 매장을 하기 위한 석관 설치 작업 모습

(3) 목관

나무로 만든 관으로 장례시 직접 광중에 매장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선호한다.

장점 : 이동이 용이하다.

간편하여 일하기가 쉽다.

단점 : 수분 조절 기능이 미약하다.

나무가 썩으면 흙이 꺼지면서 봉분이 내려 앉는다.

(4) 매장에 관한 인터뷰 내용

- 주 소 : 충북 제천시 교동 52-17번지
- 성 명 : 엄문학
- 직 업 : 공원묘원 작업반장
- 근무년수 : 약 15년



[그림78] 인터뷰 모습

Q : 공원묘원에서 근무하진 몇 년이나 되었나?

A : 15년 가까이 되었다.

Q : 그럼 이곳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장례와 개장을 했겠다.

A : 하루에 한기 장례를 치러도 약 5000기 정도이니 이루 말할 수가 없다.

Q : 그러면 개장은 얼마나 하였나?

A : 한 달에 몇 차례 정도 한다. 세면 100기도 더 한것 같다.

Q : 개장시 시신의 상태는 어떠한가?

A : 천차만별이다.

Q : 그러면 구체적으로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A : 생땅과 매립지와 지세와(예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 수맥의 유무와 작업의 차이에서 있었다.

Q : 그러면 작업 차이점이란 무엇인가?

A : 석회다지기다.

Q : 석회다지기는 왜 하는가?

A : 물의 침입과 나무뿌리, 각종 파충류 곤충의 피해를 막아준다.

Q : 그러면 석회다지기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가?

A : 석회를 흙과 50 : 50의 비율로 혼합한 후 적당량의 물과 다시 혼합하여 조금씩 다지기를 한다.

Q : 그렇게 석회다지기를 하면 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나?

A : 물의 침입을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막을 수 있다.

Q : 옛날 묘지들에 회장석한 것을 보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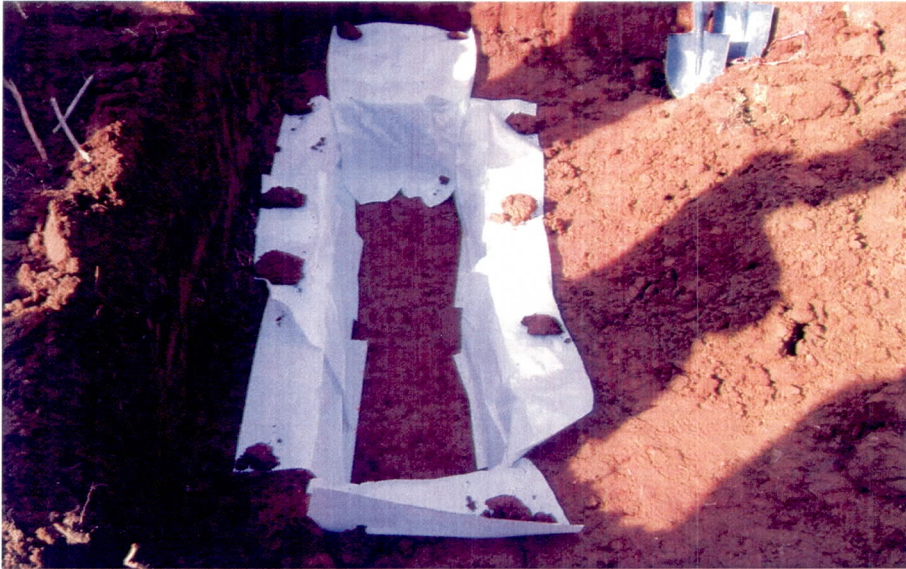
A : 여러번 보았다

Q : 제가 연구한 결과도 엄문학씨와 같은 결과였다.

시간을 내주어 인터뷰 해주신 점에 감사드린다.

(5) 배토장

순수하게 땅을 파고 그 곳에 시신을 매장하는 것으로 사람은 땅에서 나고 자라서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림79] 배토장을 하기 위한 작업 모습

장점 : 가격이 저렴하다.

낙골이 잘 된다. 봉분의 원형 보존이 쉽다.

단점 : 육안으로 보기에 불효하는 느낌을 준다.

일하기가 어렵다.

(6) 가묘

살아생전에 묘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가식적이다.

어쩔 수 없이 가묘를 조성하려면 땅을 파헤쳐 광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

다음에 정상적으로 매장을 하려면 석회 다지기를 못하는 고로 그 곳 땅이 제일 약하므로 심중팔구 물이 모여들어 축축하게 변한다.

필자가 가묘를 조성하였다가 그 다음에 매장하는 곳에 여러 번 의뢰받아

답사한 결과 물 피해가 있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곳은 충북 단양군 대강면 직터리 김씨 서산에서 경험한 것으로 3기를 조성한 바 3기가 하나 같이 물이 석관에 가득 차여 있었다.

앞에서도 서술한 바 있지만 땅속의 인위적 빈 공간을 만들면 자연은 그곳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으며 힘이 있다. 그 힘은 물로서 공간을 채우는 것이다.

2. 매장 작업과 물

작업과정에서 부실하면 마찬가지로 물이 침입할 수 밖에 없다.

요즘은 장비로 작업을 하는데 장비보다는 사람이 흙을 조금씩 넣어 구석 구석 잘 다지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다.



[그림80] 장비를 동원한 작업 모습

그 이유는 장비는 흙을 대량으로 넣어 작업을 함으로 사람보다 못하다. 그러나 장비도 흙을 조금씩 넣고 잘 다지기를 한다면 별 문제는 없다.

이처럼 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석회다지기를 하는 것은 땅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봉합술이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적으로 성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4절 묘지에서 명당토와 토색과 명당석

1. 明堂土

토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면서 단단하고 습기가 적당하며 그 단면에 윤이 많이 나고 광택이 있으며 오색을 갖춘 단단한 흙이다. 단단한 흙은 토질 間隙比가 크지 않으며 무른 흙은 그와 반대로 토질 간극비가 큰 것을 말한다.

토색은 황색을 띠고 있으나 오색을 겸비하면吉하다.⁸¹⁾

이러한 묘지에서는 유골 또한 황골로 명당의 결과다.

(1) 흙의 특성⁸²⁾

흙이 다른 건축자재인 강철이나 콘크리트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것은 불연속체라는 사실이다.

입자의 그 자체는 고체이지만 강철과 같은 결정체와는 달리 이들이 강하게 부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흙 입자는 쉽게 분리 될 수 있으며 외력을 받았을 때에는 입자 상호간 변위가 쉽게 일어난다.

81)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p128

82) 이인호, 명당국세와 혈토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p29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흙은 암석과 구별된다.

흙은 광물입자들이 자연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나 쉽게 분리 할 수 있는 반면 암석은 거의 연속적인 결합력에 의하여 강하게 부착되어 있다.

실제에 있어서는 흙과 암석의 구별이 분명하지 못할 때가 있다.

풍화과정 중에 암석은 광물분자의 결합력이 대단히 약화되어 있는 반면 흙은 거의 암석에 비견할 수 있을 정도로 고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흙이 불연속체라고 하는 사실은 토질력학이 고체력학이나 류체력학과 근본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중요한 특징이다.

불연속체인 흙 입자 사이에는 공기와 물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흙은 본질적으로 삼상이다.

흙에 하중이 가해졌을 때에는 이러한 물질의 상호작용 때문에 힘의 전달이나 변위가 단순하지 않다.

작은 입자를 가진 흙은 입자 상호간에 전기력이 작용하기도 한다.

무기질의 흙덩어리는 고체인 흙 입자, 액체인 물 및 기체인 공기의 세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물에 제외되어 있을 수도 있다.

유기질토는 위의 세가지 성분 외에 유기물질을 포함한다.

(2) 흙의 육안적 분류 기준⁸³⁾ [표1]⁸⁴⁾

구분	토립자의 육안적 판별과 일반적인 상태	손으로 쥐었다 놓음(흐트러짐 상태)		습윤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줄(끈)모양으로 꿀 때
		건조 상태	습윤 상태	
모래	개개의 입자 크 기가 판별될 수 있는 입상 건조 상태에서	덩어리 지지 않고 흐트러짐	덩어리거나 가 볍게 건드리면 흩어짐	끈 모양으로 꼬아지지 않음

83) 이인호, 명당국세와 혈토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p35

84) 이인호, 명당국세와 혈토에 관한 연구, 영남대 석사학위논문 2004, p35

	흩어져 내림			
실트질 모래	입상이나 실토 또는 점토가 섞여서 약간 점성이 있고 모래질 특성이 우수	덩어리나 가볍게 건드리면 흩어짐	덩어리지며 조심스럽게 다루면 부서지지 않음	끈 모양으로 꼬아지지 않으며 약간 부드러움
모래질 실트	적당량의 세립사와 소량 점토를 함유하고 실트입자가 반이상임 건조되면 덩어리가 쉽게 부서져 가루가 됨	덩어리되며 자유롭게 다루어도 부서지지 않음 부서지면 밀가루 감촉	덩어리지며 자유롭게 다루어도 부서지지 않음 물을 부으면 서로 엉킴	끈 모양으로 꼬아지지 않으나 작게 끊어지고 부드러우며 약간의 점성이 있음
실트	세립사와 점토는 극소량을 함유하고 시트 입자의 함량이 80% 이상 건조되면 덩어리나 쉽게 부서져 밀가루 감촉의 가루가 됨	덩어리되며 자유롭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음	덩어리지며 자유롭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으며 물에 젖으면 서로 엉킴	완전히 꼬아지지 않으나 작게 끊어지는 상태로 꼬아지고 부드러움
점토	건조되면 아주 딱딱한 덩어리가 됨 건조 상태에서 잘 부서지지 않음	덩어리지며 자유롭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음	덩어리지며 자유롭게 만져도 부서지지 않으며 찰흙 상태로 된다	길고 얇게 꼬아짐 점성이 됨

2. 土色⁸⁵⁾

모든 지세가 완벽한 혈장에다 이러한 곳의 묘지에 토색까지 겸비 했다면 최길이다.

혈속에는 흙이 5색을 겸비했으면 大吉이다. 5색이란 청·황·적·백·흑·의 토색을 말한다.

그런데 5색은 五方五行의 배치로 東, 木은 청색·西, 金은 백색·南, 火는 적색·北, 水는 흑색·中央, 土는 황색의 5색이다.

이 배색은 동쪽에서 5행의 목기가 성하기 때문에 그 색이 청색, 남쪽은 화기로 적색이다. 즉 5색은 5행의 氣의 색이며 5행의 기가 있는 곳에서 5색이 있고 역으로 5색이 있는 곳에는 5행의 氣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혈속의 토색도 이와 같이 결정된다. 흙색이 황색을 띠는 것은 토기가 응결하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흙 속에 흐르는 金氣가 모이면 흙색이 백색을 띠고, 木氣가 응결되면 토색은 청색을 띤다. 수기가 성하면 흑색을, 화기가 강하면 적색을 띠게 되는 것이다.

혈 속에 토색이 5색을 갖춘 것은 5행의 全氣를 구비해서 응결되는 것이다.

혈은 흙을 본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5색을 갖춘 혈이라도 황색을 주로 하고 다른 4색을 從으로 하는 주·종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주된 황색을 기본으로 하고 다 4색은 황색과 서로 상생관계에 서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5색이 구비된 혈장에서 토층에 따라서 색깔층이 백·흑·청·적·황(금·수·목·화·토)의 순위로 되어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5색이 갖추어지지 않을 때에도 백·청·황이라든가 청·적·황 또는 흑·적·황이 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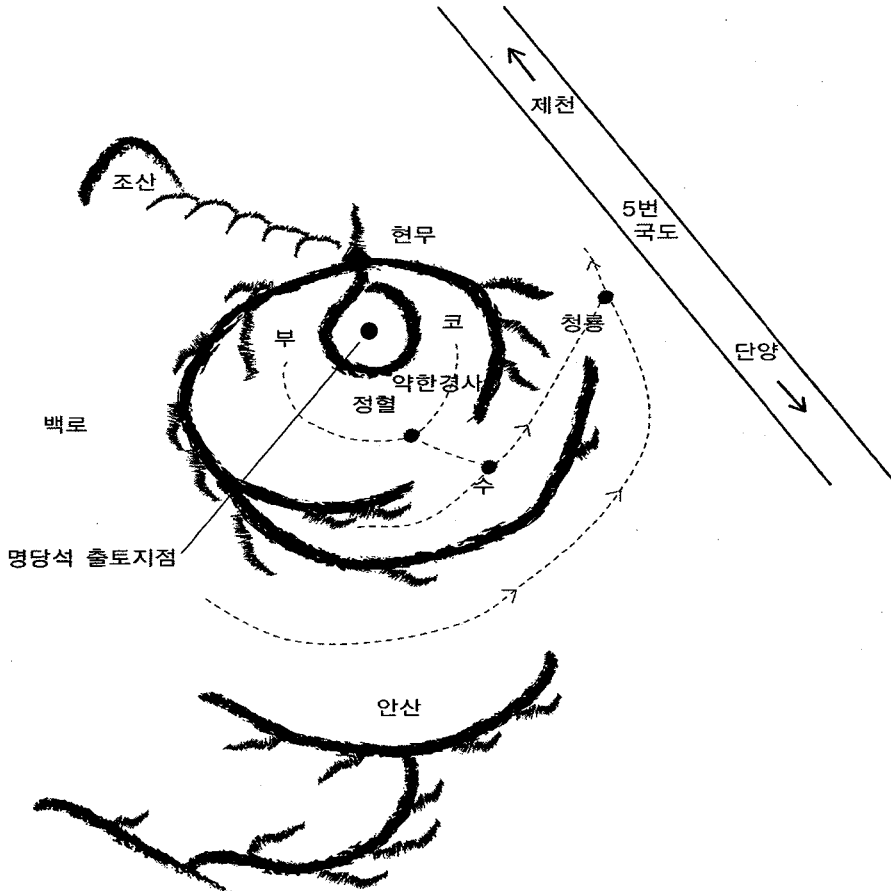
85)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p128

상생관계가 아니면 안 된다.

혈속의 기운이 따뜻해야 함을 말할 나위없다. 이 온난은 火로써 화생토의 상생관계다. 이러한 토색에도 상생관계가 진혈이다.

3. 명당석 출토사례

명당의 혈토에서 간혹 출토되는 것으로 맥근토층의 비석 비토중에서 돌로서 단란한 흙이 겹겹으로 감싸고 있어 마치 양파껍질처럼 형성 되어있다. 명당석이 크고 많으면 많을수록 길지이다.



[그림81] 명당석이 출토된 지세도

- 명당석 출토일자 : 2006년 5월 16일
- 위치 : 충북 단양군 매포읍 우덕리 안씨 선산
- 상황 : 2006년 5월 15일 필자에게 의뢰하여 답사한 결과 상기 위치로 결정하여 2006년 5월 16일 장비를 동원하여 조심스레 작업을 하던 중 처음에는 황토질 흙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노란색의 점토질 흙이 나오더니 노란색의 단단한 흙, 즉 비석비토가 나오던 중 명당석이 출토된 것이며 명당석은 필자가 보관하고 있다.



[그림82] 명당석의 모습

- 광중깊이 : 약 120cm
 황토질층(표피토층) 60cm
 노란색 점토질층(맥피토층) 30cm
 노란색 점토질의 비석비토층(맥근토층) 30cm
- 출토지점 : 약110cm

- 출토지점 토질과 색 : 비석비점토질로 노란색

- 출토원인 : 앞 서술에서나 이름에서 보듯이 명당의 혈토에서 출토된다. 명당석이 출토된 곳은 다른 곳보다 명당에 가까운 곳이었다. 그러나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지세보다 지역적 토심이 더 관계가 있는것 같았다.

표피층이나 맥개토층의 토심이 깊거나 얇은 곳에서는 맥근토층이 거의 형성하지 못하여 비석비토가 없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비만과 약체와 같다. 또한 수분 함유량이 적당하여 손으로 만져도 촉감이 좋고 윤기가 나며 맛 또한 우수하다.

그러나 명당석의 출토과정은 참으로 신비하기에 앞으로 연구할 점들이 많은 것 같다.

(1) 명당석이 출토된 지세의 장·단점

한 눈에도 좋은 자리는 처음부터 느낄 수 있다.

느낌을 뒤로하고 조산과 주산의 태용부터 살폈다.

조산은 금수산맥에서 출발한 산으로 위용을 갖추었고 주산 또한 주산으로서 위엄을 자랑하며 분벽과 변화를 거듭하며 진행한 용은 생용으로서 배합용이었다.

사신사의 현무·주작·청룡·백호의 균형·안정·조화에 응력을 살펴보니 좌청룡의 횡응력이 부족하여 혈장도 좌선의 전순도 좌측이 미흡하였다.

수세는 우출수에 좌파구로 이 또한 결점이 있으나 혈장안에 수맥은 없었다. 대체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곳이었으며 입수3절이 가장 좋았다.

- 장점 : 3절 변화 입수용으로써 전순 우선익이 잘 형성된 혈장이며 우백호의 횡응력이 잘 형성되어 응집력이 뛰어나 재물과 처 덕이 있을 것이다.

- 단점 : 좌청룡의 횡응력이 부족하여 전체적으로 좌측의 균형이 부족하다.

제5절 공원묘원에서 묘지선정방법 및 묘지에서 최종 명당 확인방법

1. 공원묘원 묘지 선정방법

(1) 수맥 유무를 확인한다.

수맥은 명당에서도 꺼리는 것으로 유골이 검고 심하면 삭아서 없어지며 수맥이 지나간 부위만큼 그 후손들에게 질병 및 인패·재패의 손상을 시킨다.



[그림83] 공원묘지 전경

(2) 조성전의 산 앞과 뒤를 구분한다.

산을 절삭하여 평탄하게 만들었으나 산의 앞과 뒤는 있다. 산의 원 성격인 산의 본 성질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본 모습에서 산 뒤쪽에다 묘지 조성을 권유하면 그 누구도 조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평탄 작업을 한 곳에서는 모르고 또는 평탄하게 조성되었으니 하고 생각하며 묘지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산을 위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용맥 흐름을 역으로 받는 것이다.

이것은 풍수지리에서 가장꺼리는 역발상으로 배산임수(뒤쪽은 산, 앞쪽은 물)의 역으로 배수임산(뒤쪽에는 수, 앞쪽은 산)으로 논할 가치가 없다.

(3) 조성전의 계곡자리였던 곳을 피하라.

본디 계곡이었던 곳은 매립을 하여도 그 부분이 가장 약하므로 그 곳으로 물이 모여들어 땅속에 물이 흐르듯 지하수로로 변하여 물이 흐른다.

그러한 곳에 묘지를 조성하면 수맥위에 조성한 묘지처럼 그러한 영향의 해를 당한다.

(4) 생땅을 구하라.

매립지가 생땅보다 나쁘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다 아는 현실이다.

풍수지리도 이러한 맥락에서 출발하였으며 그러한 관점에서 이해하면 쉽다. 매립을 한 땅은 생땅보다 모든 자연 여건에서 약하다.

즉 물·바람·동절기에 땅 얼기 등이 있다.

매립지는 동절기에 땅의 얼기와 해동을 반복하면서 다져진다. 즉 땅이 잠잔다고 한다.

사람이 자기 살을 이식 수술을 한다 해도 본 살처럼 되는 기간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 하물며 땅이란 흙이 다져지고 생땅처럼 되려면 족히 수백년은 걸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구생명과 인간 생명 나이를 계산하면 알 것이다. 수맥은 4장 2절 수맥 찾는 방법 참조

생땅은 지형지물과 주변 산천을 참고로 육안으로도 알 수 있다.

산의 앞·뒤와 계곡은 수맥 찾는 방법으로 찾는데 경험자에게 의례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것은 용의 진행과 물의 흐름 즉 래용법과 물의 기 반응으로 인하여 그 방향과 폭(넓이)등을 계산하여 알 수 있다.

2. 묘지에서 최종 명당 확인법

광중은 매장시 땅을 뚫어 시신을 안치하기 위한 작업이다.

땅을 뚫는 것은 땅에 상처를 주는 것으로 최대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여 한다.

광중은 대개 혈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50cm 전후로 이루어 진다. 광중이 완성된 혈장에서 간단하게 진혈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

혈장에서 광중이 만들어진 후 그곳 즉 광중 안에 들어가 불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산에서 불이란 일회용 라이터면 된다.

광중안에서 라이터 불을 켜고 그 불꽃의 흔들림을 보는 것이다. 수맥이 있 다거나 냉기가 나온다거나 수분이 아주 많다든가 하면 불꽃이 흔들린다.

수맥은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불꽃이 흔들리고, 냉기는 냉기가 나오는 반대방향으로 흔들린다. 수분이 많을 때는 방향없이 좌우나 전후로 많이 흔들 린다. 이럴 때는 혈장으로서 혈이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혈장의 기는 생기가 없고 기가 누설되어 냉혈이므로 매장이 불가능하다.

만약 이런 곳에 매장을 하면 시신은 낙골이 늦으며 유골은 검은색으로 빨리 녹아 없어진다. 그 후손에게 나쁜 영향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 주의할 점 : 불꽃의 반응을 확인할 때 광중 밖의 바람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

제5장 결론

풍수지리 이론은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길흉과 발복을 논하는 것으로 그 토대는 음양오행설로 물·바람·땅의 이치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구조다.

이론적 구조를 보면 지세에서 용·혈·사·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용(맥)이란 물을 만나야 멈추고 멈춘 곳의 지세(용·혈·사·수)가 훌륭하면 명당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지리 이론의 지세에서 간용법·형국론·정혈법·장풍법·득수법의 이론을 분석하였고 지세와 물과 수맥을 집중 연구하였다.

풍수지리학에서 지세론과 득수법이 가장 중요하다. 땅을 보고 물을 살펴터를 정하는 것이다. 그 정한 터가 명당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당에 묘지를 정하였다 하여도 매장시 잘못으로 인한 물의 침입을 막을 수 없다면 명당으로써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묘지를 잘못 정하여 땅에 습기가 많아 관 속에 물이 차는 것을 수렴이라 하며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경우인데, 수렴이 심할 경우 시신이 물에 둥둥 떠 있는 예도 있다. 이렇게 되면 시신이 까맣게 되고 물에 툭툭 붙어 매우 흉하다. 매장 할 때는 물이 없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땅 속 수분 때문에 물이 발생하는 것이다. 직사각형 골짜기 지세의 산소자리에서 발생하는 것이 현장에서 확인되었다.

균형을 잘 이루었고 안정되어 조화가 잘 된 지세면 명당이라고 할 수 있다. 명당이라도 수맥이 지나가면 수맥에 의한 영향으로 그 곳의 땅은 습하고, 습이 있으면 잔디는 잘 자라지 않으며 잡초인 왕피·쭉·토끼풀·미나리 등 수맥을 좋아하는 풀이 잘 자라고 무덤이 꺼지고 흙은 흘러내려 묘지

의 봉분이 적어 질 수도 있으며 묘지의 묘태석인 돌도 갈라지며 유골은 겹게 변하고 심하면 삭아서 완전히 흔적이 없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변화되는 것을 현장에서 확인하였다. 수맥의 성질상 발생하는 기운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추측된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지세에도 수맥이 있기 마련이다. 수맥이 지나가는 자리인 방에서 잠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잠을 잔 사람은 그 기에 의하여 중풍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는다. 특히 사람이 잠잘 때는 뇌가 쉬고 이튿 날 일을 하기 위한 충전을 하여야 하는데 수맥과가 뇌를 귀찮게 하는 것과 같다. 그로인해 불면증이 오고 신경성 두통이 나타나게 된다. 임산부나 노약자는 수맥을 피하는 것이 좋다.

집승 중에서도 소나 개는 수맥을 싫어한다. 일례로 수맥이 있는 방에서 강아지들은 잠을 자지 않는다. 그러나 이 또한 물의 성질상 수맥이 발생하는 기운 때문에 의한 현상으로 추측할 뿐이다.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다.⁸⁶⁾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묘터나 집터에서 물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된다.

물은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한 생과 사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없어서도 아니되니 지세(용·혈·사·수)를 분석하고 물을 얻어(득수) 명당을 찾아 물의 피해를 줄이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며 결론이다.

8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p105

참 고 문 헌

1. 학위논문

- 강환웅, 조선초기의 풍수지리 사상 연구, 세종대학교, 2003
- 강현구, 풍수지리 이론과 주거 입지론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2.
- 박시익, 풍수지리설 발생 배경에 관한 분석연구, 고려대학교, 1987.
- 박시익, 풍수지리설과 건축계획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1978.
- 서종문, 서울의 지세와 궁궐 입지에 대한 풍수지리학적 분석연구, 한성대학교, 2005.
- 유재백, 풍수에 의한 양택의 공간 배치론 연구 대구한의대학교, 2004.
- 이금자, 도선의 비보풍수에 나타난 자연보전의식, 서울교육대학교, 2003.
- 이선우 경주 최부자 가문 형성에 미친 풍수지리 연구 영남대학교, 2004.
- 이인호, 명당국세와 혈토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04.
- 장기웅, 풍수지리 사상과 건축문화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경산대학교, 2001,
- 정반석, 수원지역의 전통 건축과 풍수지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2003.
- 홍순민, 조선 왕조 궁궐경영과 양혈체제의 변천, 서울대학교, 1996.

2. 도서

강영수, 풍수로 보는 터잡기, 예문당 1995
 강동규, 지리나경투해, 명문당 1990
 김광제, 나의 명당 답사기, 서울문화사 1995
 김두유, 명산론, 비봉출판사 2002
 김종철, 실전 풍수인테리어 1·2, 무한 1996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2004
 백동기, 월영도(토정 이지함 원저 편택), 명문당 1993
 손석우, 혈, 연봉 1995
 양종천, 수맥을 알면 건강이 보인다, 대광출판사 1993
 오상익, 장경, 동학사 1993
 유효동·유물동, 명당풍수보감, 문예춘추사 1993
 이명무, 명당자리요법, 명당 1996
 이익성 역, 택리지, 을유문화사 1995
 이익중, 길한터 흉한터, 동학사 1994
 이태진, 풍수지리 입문, 미상 1995
 임응승, 수맥과 풍수, 양정사 1991
 임준, 좋은 땅 좋은 집, 한국자료정보사 1993
 임학섭, 전설로 배우는 풍수, 문예산책 1996
 장용득, 명당론, 남영문화사 1980
 전태수, 방위학입문, 명문당 1987
 전창선·어윤희, 음양이 뭐지, 세기 1994
 정관도, 구철현 묘비서 내외경, 지선당 1996
 정관도, 도선국사 풍사 문답, 지선당 1994
 지창룡,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활풍수, 책 만드는 집 1995

최길성, 조선의 풍수, 민음사 1992

최창조, 좋은 땅이란 어디를 말함인가, 서해문집 1990

최창조, 청오경·금낭경, 민음사 1993

한국자연지리협회, 명당의 기운, 경덕출판사 2003

한중수, 택일전서, 명문당 1993

홍대형, 한국의 건축문화재, 기문당 2001

황봉득, 풍수로 보는 인테리어, 동도원 1995

ABSTRACT

A Study on the water and tomb on the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Jang, Young-Gu

Major in Feng Shui

Graduate School of Real Estate

Hansung University

The excellent spot it is like that and the water it holds, it is knowing with the warm place. It is a good word. There are a lot of water in the world, warm place which is holding the affect of wind.

If it will become the excellent spot and karma, human must give some anything to other to make the relationship.

The person who accumulates virtue will adapt even to a nature. In that person it requites at the excellent spot and there is to an ecosystem which it asks from certainly a many damage it is an existence which is necessary but it gives.

In fact, when it opens a court the cemetery, the damage gives most prominently the fact that is the water. There is a water and the tree root and the insect back with the love rival to sleep it coexists. The research result regarding the water, the fact that it gets well is the excellent spot. Namely the place which it will avoid

avoids, the place which it will use the method with the thing it avoids well from the cemetery.

The best way of avoid the water is that the first is The ground where the animation life flows. The second is the river of the ground, it avoids [流:yu] and the water vein.

The third is fished with the lime to cure scar of earth.

Adding the wind, the water, and the person is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 a natural science. The fact that it proves this is subject of theory of divination based on topography.